

제5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 베이비 부머를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

일 시 | 2011.5.30(월) 14:30 ~ 17:30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5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Program

14:00~14:30	등 록	
14:30~14:40	개 회 인사말씀	최희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14:40~15:10	좌 장 발 제	조원권 (우송대학교 부총장) 베이비 부모의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과제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5:10~15:40	사 례 발 표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류재룡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부회장)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차장) (가나다 순)
15:40~16:00	휴 식	
16:00~16:40	토론	강 인 (서울 사이버대 교수) 공상길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오영훈 (라이프커리어전략연구소장) 한은주 (화성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가나다 순)
16:40~17:30	종 합 토 론 및 폐 회	



Contents

발 제

-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과제
 -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사례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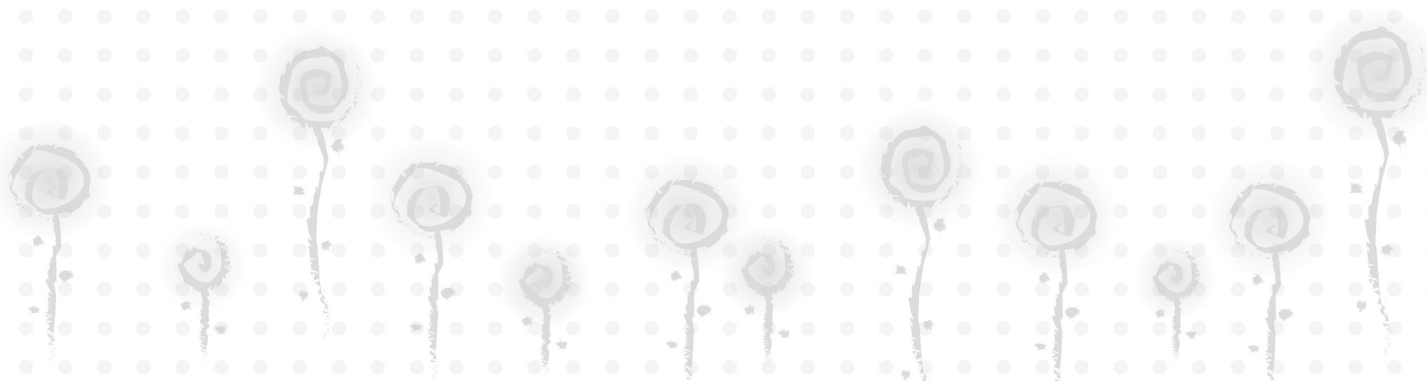
-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 류재룡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부회장) ----- 33
 -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차장) ----- 53

토론

- 강 인 (서울 사이버대 교수) ----- 67
- 공상길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 76
- 오영훈 (라이프커리어전략연구소장) ----- 85
- 한은주 (화성건강가정지원센터장) ----- 94

베이비 부모의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과제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과제

발제문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1. 개념의 정의 : 노후설계란 무엇인가?

□ 무엇을?

○ 퇴직 vs 노후 vs 제3기 인생 vs 생애

* P.Laslett의 “제3기 인생” : 인생을 4기로 구분

□ 어떻게?

○ 준비 vs 설계

□ 다양한 용어의 스펙트럼은 두 가지 차원으로 압축 가능함.

- 첫째, ‘무엇’에 해당하는 노년기에 대해 단절적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생애주기 전체 속에서 연속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단절적 vs 연속적 차원으로 구분 가능
- 둘째, ‘어떻게’를 적극적 의미의 설계로 보는가 또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미의 ‘준비’로 보는가에 따라 적극적 vs 소극적 차원으로 구분 가능
- ‘무엇’과 ‘어떻게’에 관한 두 가지 차원을 교차시켜 개념을 구분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은 구분 가능

〈표 1〉 노후설계의 개념 차원 구분

	적극적	소극적
연속적	생애설계	
단절적	노후설계	퇴직준비, 노후준비

- 퇴직 준비는 퇴직 이라는 단절적인 특정사건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 미리부터 준비해서 대처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여기서의 부정적인 영향과 이에 대한 준비는 주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이 가져올 경제적 소득원의 상실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전직준비 및 재취업 준비 또는 대안적 소득원에 대한 준비를 의미하게 됨
- 노후준비는 생애주기 중 ‘노년기’로의 진입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해 준비해 나간다는 의미로서 퇴직 준비보다 포괄적이나 여전히 노년기가 가지고 올 상실에 대한 소극적 대처의 의미를 내포하며 이에 따라 주로 경제적 준비와 등치되는 경향
- 노후설계의 경우 ‘준비’보다는 적극적인 ‘설계’의 의미를 함축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협소한 의미의 ‘재무설계’와 혼용되는 경향 보임. 이는 노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생애주기의 연속적인 과정이 아닌 단절적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보임
- 반면 생애설계의 경우 현실에서 생소한 용어이지만 용어자체가 규정하는 의미의 범위가 가장 폭넓은 용어임.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향해 나가야 할 용어.
- 궁극적으로 노후설계의 개념은 노후를 생애주기의 연속적인 한 단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후설계 지원 서비스(또는 지원체계)는 이러한 노후설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적, 물적 서비스를 의미.

□ 또한 노후설계의 목적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더욱 길어진 노년기를 인생의 ‘짜투리’가 아닌 적극적인 한 단계로 규정하고 전 국민이 이에 대해 사전에 계획하고 설계해 나갈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년기 이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노후설계의 범위는 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영역 전반(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에 관한 것이어야 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이 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민경진(2006)은 학력이 높고, 부부가 함께 살며 노인 스스로 경제적 담당자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제시하였으며 정명숙(2005)은 전반적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경제수준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함
- 설민신(2000), 이동수(2003) 등은 노인의 운동을 통한 여가활동이 심리 변수에 긍정적 결과를 보임을 제시하였으며 김경식(2004), 임창희(2008) 역시 노인의 여가생활 참여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함.
- 최지원(2001)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이 하고 있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불안, 걱정이 적고 감정의 기복이 적다는 사실을 제시했으며 이성옥(2005)는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활동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줌
- 황미구·김은주(2008)는 일반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노인 집단에서 우울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며 이신숙(2002)은 건강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보여줌.
- 김정석·김익기(2000) 등은 자녀들과 지원을 교환하는 노인들이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발견하였으며 김영범·박준식(2004) 역시 배우자 중심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이해자·김윤정(2004) 또한 부부관계가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해 가족관계가 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제시

2. 노후설계 서비스의 필요성 및 국가 개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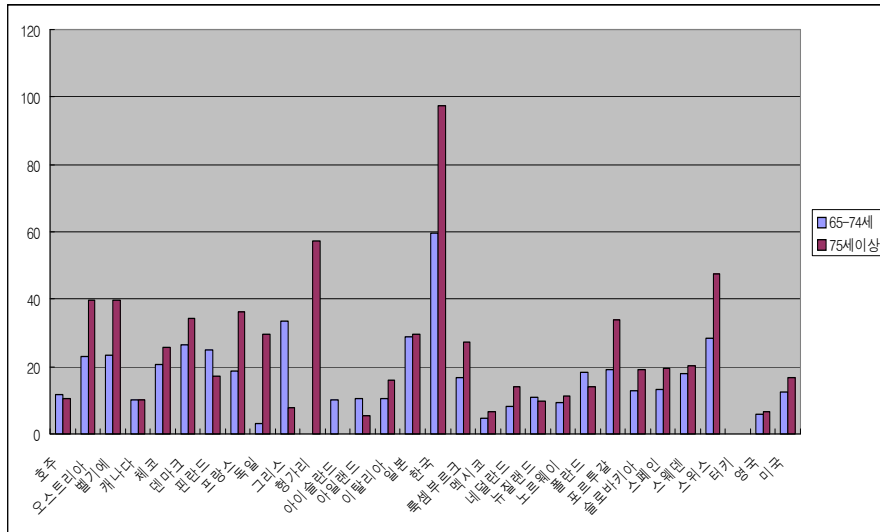
□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외국의 경우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의 공공 및 민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이처럼 외국에서의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음.

- 첫째, 고령자를 위한 사회 정책을 비롯한 제도적 인프라의 수준이 미약함
- 둘째, 우리 사회는 연령차별적 규범이 강하며 연령통합성이 낮음
- 셋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찾기 어려우며 생애주기에서 노년기의 단절성이 큼

□ 이러한 폐해는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 높은 노인빈곤률, 낮은 삶의 질 등의 지표를 통해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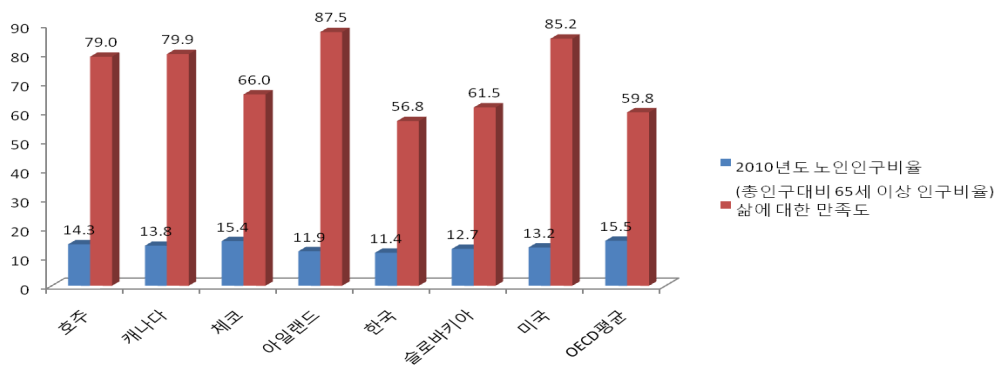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2위인 헝가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그림 1〉).
- 우리나라와 노인인구 비율이 유사한 다른 나라에 비해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남(〈그림 2〉).

〈그림 1〉 OECD 국가의 노인자살률



출처 : 이소정 외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분석』(2009)

〈그림 2〉 OECD 국가별 노인인구 비율 및 삶의 만족도



*출처: Labour Force Statistic 2008, OECD Factbook 2008,
Society at a Glance 2006, The World Values Survey, wave 1999-2004

□ 한편 반드시 공공의 개입을 통해 노후설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과거 제기된 바 있으며 또한 공공의 역할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

□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음.

- 노후설계 서비스는 준공공재임. 즉, 노후설계서비스는 충분히 시장기제를 통해 경쟁적이고 배타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는 서비스를 받은 노인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며 가족구성원을 비롯해 보다 넓게는 사회구성원들 모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구성원들 모두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노후설계서비스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큼. 즉, 노후설계서비스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자식 세대는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사회전체적으로는 사회통합의 효과, 고령화 시대의 재정절감 효과, 성장동력 확보 등이 예가 될 수 있음.
-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 및 선택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
 -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에 참여한 거래당사자간에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쉬운 문제.
 - 즉 어떤 재화가 시장기제에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려면 그 재화의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그 재화의 질과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이 있어야 함. 따라서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설정된 그 재화의 배분은 비효율적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화의 소비자들보다 국가가 이러한 재화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국가가 주도하여 이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임.
 -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시장에서의 배분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은 재화 : 첫째, 재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즉,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둘째, 재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셋째, 재화를 잘못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가 매우 큰 경우.

- 노후설계서비스의 경우 현재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 수준에서부터 불일치가 나타나며 뿐만 아니라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일자리) 등 수요자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정보를 포괄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기 매우 용이함.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잘못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경우 개인의 노후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손해가 매우 큼.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 그러나 국가가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민간의 효과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설계 실태 및 함의

□ 자료 1 : 2008년 3월~4월 실시된 전화조사 데이터 1000 케이스 중 베이비붐 세대 563명 재분석

□ 자료 2 : 2010년 11~12월 실시된 전화조사 데이터 1000케이스 중

1)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 관한 인식

□ 노후에 대한 생각 정도

- 베이비붐 세대의 78.1%는 노후에 대해 자주 또는 가끔 생각하며 노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8.7%에 불과

- 남성에 비해 여성이 노후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빈도 높음
- 소득수준이 낮고 직업계층이 낮을 수록 노후에 대한 생각빈도 낮음

〈표 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 대한 생각 정도

(단위: % 명)

구분	자주 생각	가끔 생각	보통	거의 생각하지 않음	전혀 생각하지 않음	계
성						
남	31.8	41.3	14.1	6.0	6.7	100.0(283)
여	42.1	41.1	12.1	3.2	1.4	100.0(280)
학력						
중졸이하	29.3	50.0	11.2	5.2	4.3	100.0(116)
고졸	41.7	34.8	13.4	5.3	4.9	100.0(247)
대졸이상	35.7	43.7	14.1	3.5	3.0	100.0(199)
월수입						
100만원 미만	46.7	23.3	10.0	13.3	6.7	100.0(30)
100-200만원미만	32.1	43.2	11.1	7.4	6.2	100.0(81)
200-300만원미만	32.4	41.7	15.7	6.5	3.7	100.0(108)
300-400만원미만	40.3	41.8	13.4	2.2	2.2	100.0(134)
400-500만원미만	37.0	43.8	12.3	4.1	2.7	100.0(73)
500만원 이상	41.1	39.5	12.1	2.4	4.8	100.0(124)
근무직종						
관리자·전문직	34.9	43.4	12.3	3.8	5.7	100.0(106)
사무직	49.1	32.1	11.3	5.7	1.9	100.0(53)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39.2	40.8	11.7	4.2	4.2	100.0(120)
농·임·어업	23.5	44.1	11.8	14.7	5.9	100.0(34)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28.4	43.2	13.5	9.5	5.4	100.0(74)
주부 및 기타	39.2	41.5	15.3	1.1	2.8	100.0(176)
계	36.9 (208)	41.2 (232)	13.1 (74)	4.6 (26)	4.1 (23)	100.0 (563)

□ 노후 기대정도

- 베이비붐 세대의 51%는 노후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노후 생활에 대해 기대하
는 비율은 15.1%에 불과

- 노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대 정도에 있어 성별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음
- 흔히 예측되는 바와 같이 학력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높음.
- 직종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및 전문직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약 과반의 비율이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노후 기대정도

(단위: % 명)

구분	상당히 기대	다소 기대	보통	다소 걱정	상당히 걱정	계
성						
남	4.6	10.3	35.2	39.1	10.7	100.0(281)
여	2.9	12.5	32.5	40.0	12.1	100.0(280)
학력						
중졸이하	.0	8.6	34.5	35.3	21.6	100.0(116)
고졸	1.6	10.2	30.1	48.4	9.8	100.0(246)
대졸이상	8.6	14.6	37.9	31.3	7.6	100.0(198)
월수입						
100만원 미만	.0	6.7	20.0	36.7	36.7	100.0(30)
100-200만원미만	.0	4.9	24.7	50.6	19.8	100.0(81)
200-300만원미만	1.9	5.6	40.7	40.7	11.1	100.0(108)
300-400만원미만	1.5	16.5	30.1	40.6	11.3	100.0(133)
400-500만원미만	5.5	12.3	42.5	32.9	6.8	100.0(73)
500만원 이상	10.6	15.4	37.4	32.5	4.1	100.0(123)
근무직종						
관리자·전문직	4.8	21.9	39.0	26.7	7.6	100.0(105)
사무직	9.4	7.5	34.0	35.8	13.2	100.0(53)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5.0	7.6	29.4	46.2	11.8	100.0(119)
농·임·어업	.0	8.8	41.2	32.4	17.6	100.0(34)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1.4	2.7	32.4	47.3	16.2	100.0(74)
주부 및 기타	2.3	13.1	33.0	42.0	9.7	100.0(176)
계	3.7	11.4	33.9	39.6	11.4	100.0
	(21)	(64)	(190)	(222)	(64)	(56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2008) 원자료 재분석

□ 노후 걱정거리

-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노후 걱정거리는 건강(39.8%), 생활비용(34.3%), 치매 및 중풍(10.1%), 무위(8.3%) 등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활비용, 무위, 가족 부양 등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상실, 치매 및 중풍 등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중졸이하의 저학력층의 경우 건강상실에 대해 염려하는 비율이 타 학력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의 중간학력층의 경우 생활비용에 대한 염령,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무위에 대해 염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후걱정거리에 대한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차이도 발견할 수 있음. 가령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자와 서비스 판매 종사자, 그리고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건강상실에 대한 걱정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사무직 종사자와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의 경우 생활비용에 대한 걱정 비율이 가장 높음. 또한 전문가 및 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무위에 대한 걱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 노후걱정거리

(단위: % 명)

구분	생활 비용	주택	건강 상실	치매 중풍	무위	가족 부양	기타	계
성								
남	41.7	1.4	33.6	7.1	9.2	5.3	1.8	100.0(283)
여	26.8	1.4	46.1	13.2	7.5	2.1	2.9	100.0(280)
학력								
중졸이하	25.9	2.6	47.4	11.2	6.0	5.2	1.7	100.0(116)
고졸	38.1	1.2	37.2	10.5	7.3	3.2	2.4	100.0(247)
대졸이상	34.7	1.0	38.2	9.0	11.1	3.5	2.5	100.0(199)
월수입								
100만원 미만	53.3	.0	26.7	6.7	3.3	10.0	.0	100.0(30)
100-200만원미만	32.1	1.2	42.0	8.6	9.9	3.7	2.5	100.0(81)
200-300만원미만	33.3	3.7	37.0	12.0	5.6	5.6	2.8	100.0(108)

구분	생활 비용	주택	건강 상실	치매 중풍	무위	가족 부양	기타	계
300-400만원미만	40.3	.7	38.1	11.2	6.0	1.5	2.2	100.0(134)
400-500만원미만	34.2	.0	42.5	5.5	11.0	4.1	2.7	100.0(73)
500만원 이상	25.8	1.6	43.5	12.9	11.3	3.2	1.6	100.0(124)
근무직종								
관리자·전문직	34.0	.0	40.6	9.4	14.2	.9	.9	100.0(106)
사무직	47.2	3.8	24.5	7.5	11.3	3.8	1.9	100.0(53)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35.0	1.7	40.8	9.2	6.7	5.8	.8	100.0(120)
농·임·어업	23.5	.0	41.2	11.8	5.9	11.8	5.9	100.0(34)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45.9	2.7	37.8	4.1	5.4	2.7	1.4	100.0(74)
주부 및 기타	27.3	1.1	43.8	14.2	6.8	2.8	4.0	100.0(176)
계	34.3 (193)	1.4 (8)	39.8 (224)	10.1 (57)	8.3 (47)	3.7 (21)	2.3 (13)	100.0 (56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2008) 원자료 재분석

□ 희망 은퇴 시기

- 베이비붐 세대의 43.8%는 55~60세에 은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력수준이 고졸의 중간학력층인 경우, 중간 수준의 소득계층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인 경우 55~60세 은퇴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실제 이들 집단이 더 빠른 시기에 퇴직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한편 66세 이후의 늦은 은퇴를 희망하는 비율은 중졸이하의 저학력층과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남. 이들 집단은 상이한 이유로 인해 늦은 은퇴를 희망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표 5〉 희망 은퇴 시기

(단위: % 명)

구분	54세 이전	55~60세	61~65세	66세 이상	계
성					
남	2.6	39.0	27.7	30.7	100.0(267)
여	5.5	53.9	24.2	16.4	100.0(128)
학력					
중졸이하	4.1	39.7	24.7	31.5	100.0(73)
고졸	4.2	50.6	25.0	20.2	100.0(168)
대졸이상	2.6	37.9	29.4	30.1	100.0(153)
월수입					
100만원 미만	.0	23.5	35.3	41.2	100.0(17)
100~200만원미만	1.8	49.1	24.6	24.6	100.0(57)
200~300만원미만	1.3	44.0	26.7	28.0	100.0(75)
300~400만원미만	6.1	42.4	27.3	24.2	100.0(99)
400~500만원미만	4.1	36.7	30.6	28.6	100.0(49)
500만원 이상	4.3	47.8	23.9	23.9	100.0(92)
근무직종					
관리자·전문직	3.8	41.5	30.2	24.5	100.0(106)
사무직	3.8	58.5	26.4	11.3	100.0(53)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2	44.9	22.0	28.8	100.0(118)
농·임·어업	.0	18.2	30.3	51.5	100.0(33)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4.1	43.8	26.0	26.0	100.0(73)
주부 및 기타	.0	58.3	33.3	8.3	100.0(12)
계	3.5 (14)	43.8 (173)	26.6 (105)	26.1 (103)	100.0 (39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2008) 원자료 재분석

□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활동 유형

- 베이비붐 세대의 44.4%는 희망하는 노후활동으로 취미 및 여가활동을 응답함.
그 다음이 종교등 신앙생활(13.9%), 자원봉사(13.5%)의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와 관련된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직업관련 일들’(7.6%), ‘전혀 새로운 다른 일’(3.4%) 등 약 1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 희망 활동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응답이 타 활동에 비해 높지 않음

〈표 6〉 희망하는 노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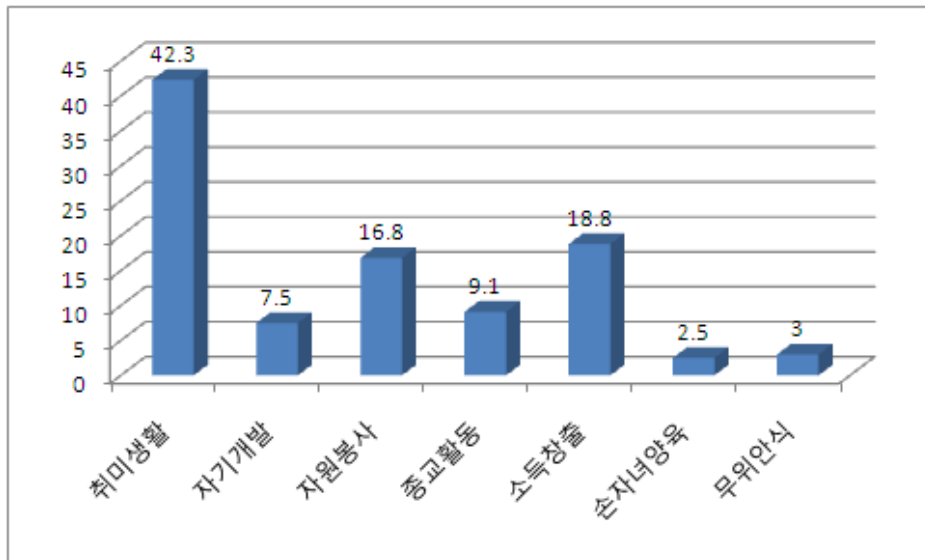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취미 여가활동	주변인과 친목활동	종교 신앙생활	하고싶었 던 공부	자원봉사	사회참여 활동	직업관련 일들	전혀새로 운다름일
성								
남	48.9	10.7	10.7	2.1	9.6	3.6	8.9	5.4
여	40.6	11.2	17.3	4.0	17.6	1.4	6.5	1.4
학력								
중졸이하	33.9	14.3	12.5	3.6	20.5	3.6	8.0	3.6
고졸	49.6	12.2	11.8	3.7	10.6	2.8	6.5	2.8
대졸이상	45.2	7.5	17.6	2.0	13.1	1.5	9.0	4.0
월수입								
100만원 미만	46.4	7.1	14.3		10.7		14.3	7.1
100-200만원미만	31.3	13.8	20.0	1.3	15.0	5.0	11.3	2.5
200-300만원미만	47.2	9.4	13.2	2.8	17.0	1.9	4.7	3.8
300-400만원미만	40.3	12.7	12.7	4.5	14.9	4.5	7.5	3.0
400-500만원미만	47.9	5.5	15.1	5.5	12.3		9.6	4.1
500만원 이상	53.2	12.9	11.3	2.4	8.9	1.6	6.5	3.2
근무직종								
관리자·전문직	49.1	7.5	13.2		11.3	3.8	10.4	4.7
사무직	49.1	3.8	22.6	3.8	11.3	1.9	1.9	5.7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6.2	10.1	11.8	5.9	13.4	1.7	9.2	1.7
농·임·어업	36.4	12.1	15.2	3.0	9.1	3.0	21.2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38.9	20.8	8.3	4.2	8.3	5.6	6.9	6.9
주부 및 기타	44.0	11.4	15.4	2.3	18.9	1.1	4.6	2.3
계	44.4	10.8	13.9	3.0	13.5	2.5	7.6	3.4
	(250)	(61)	(78)	(17)	(76)	(14)	(43)	(1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2008) 원자료 재분석

-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 노후 생활에 대한 응답결과는 조사마다 다소 상이함.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희망 활동으로서 취미생활(42.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창출 활동(18.8%), 자원봉사활동(16.8%)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생활



* 출처 :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적합한 노후준비 시기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식

- 베이비붐 세대의 40.6%는 30대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30대 이전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반대의 경우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계층에 따라 노후준비 인식률에 차이가 있음

〈표 7〉 적합한 노후설계시기

(단위: % 명)

구분	20대부터	30대부터	40대부터	50대부터	60대이후	계
성						
남	16.4	37.0	31.7	12.8	2.1	100.0(281)
여	19.4	44.2	23.7	10.4	2.2	100.0(278)
학력						
중졸이하	9.6	35.1	36.8	13.2	5.3	100.0(114)
고졸	20.4	42.9	24.1	12.2	.4	100.0(245)
대졸이상	19.6	41.2	27.1	9.5	2.5	100.0(199)
월수입						
100만원 미만	25.9	29.6	18.5	22.2	3.7	100.0(27)
100-200만원미만	17.3	35.8	27.2	14.8	4.9	100.0(81)
200-300만원미만	17.8	37.4	30.8	12.1	1.9	100.0(107)
300-400만원미만	14.2	42.5	29.1	11.9	2.2	100.0(134)
400-500만원미만	13.7	52.1	24.7	9.6	.0	100.0(73)
500만원 이상	21.0	40.3	29.0	8.1	1.6	100.0(124)
근무직종						
관리자·전문직	20.8	36.8	27.4	14.2	.9	100.0(106)
사무직	24.5	28.3	32.1	13.2	1.9	100.0(53)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7.5	47.5	25.8	7.5	1.7	100.0(120)
농·임·어업	9.1	21.2	36.4	27.3	6.1	100.0(33)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12.3	39.7	35.6	9.6	2.7	100.0(73)
주부 및 기타	18.4	46.0	23.0	10.3	2.3	100.0(174)
계	17.9 (100)	40.6 (227)	27.7 (155)	11.6 (65)	2.1 (12)	100.0 (55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2008) 원자료 재분석

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정도

□ 영역별 노후준비도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45-64세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건강 영역의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반면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는 조사대상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를 전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후기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건강, 사회참여 등의 노후준비도가 더 높게 나타남. 반면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여가에 대한 준비 정도가 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종합해 보면 1955~1959년 출생집단인 전기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1960~1963년 출생집단인 후기베이비붐 세대가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표 8〉 출생연도·성별 노후준비도

	전체 (45-64세)	출생연도	
		1955-1959년생	1960-1963년생
경제			
충분히 하고 있다	5.2	5.6	4.5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3.7	31.7	36.4
보통이다	29.8	29.4	30.5
거의 못하고 있다	26.4	28.7	23.2
아예 못하고 있다	5.0	4.6	5.5
건강			
충분히 하고 있다	8.0	7.6	8.6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9.0	35.3	44.1
보통이다	33.5	35.0	31.4
거의 못하고 있다	17.0	19.5	13.6
아예 못하고 있다	2.5	2.6	2.3
여가			
충분히 하고 있다	4.0	3.6	4.5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3.1	24.1	21.8
보통이다	31.5	28.1	36.4
거의 못하고 있다	36.1	39.3	31.8
아예 못하고 있다	5.2	5.0	5.5
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			
충분히 하고 있다	5.4	5.0	5.9
어느 정도 하고 있다	19.3	18.8	20.0
보통이다	26.2	24.4	28.6
거의 못하고 있다	41.7	45.2	36.8
아예 못하고 있다	7.5	6.6	8.6
계	100.0	100.0	100.0
(명)	(523)	(303)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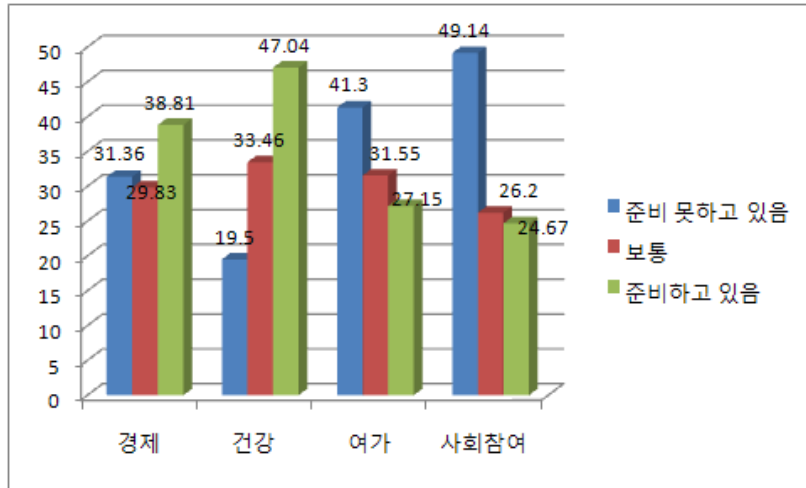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2010)

〈표 9〉 연령별 노후준비도

	전체	연령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경제					
충분히 하고 있다	5.5	4.4	6.2	5.5	6.6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0.4	34.1	33.3	27.4	22.8
보통이다	31.9	35.0	29.7	31.6	29.9
거의 못하고 있다	26.9	21.6	26.4	28.7	35.3
아예 못하고 있다	5.3	5.0	4.3	6.8	5.4
건강					
충분히 하고 있다	7.4	6.9	9.1	6.3	7.2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9.2	44.4	34.4	38.8	37.7
보통이다	32.1	32.5	35.1	30.0	29.3
거의 못하고 있다	18.2	14.1	18.5	21.1	21.6
아예 못하고 있다	3.1	2.2	2.9	3.8	4.2
여가					
충분히 하고 있다	4.2	4.4	2.9	6.3	3.0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4.8	25.3	25.0	22.8	26.3
보통이다	29.6	32.8	30.1	27.8	25.1
거의 못하고 있다	35.4	32.5	38.8	34.2	37.1
아예 못하고 있다	6.0	5.0	3.3	8.9	8.4
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					
충분히 하고 있다	4.1	3.8	6.5	3.0	2.4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0.4	22.5	20.3	15.6	23.4
보통이다	22.8	25.6	25.4	22.4	13.8
거의 못하고 있다	43.0	39.1	41.3	46.4	48.5
아예 못하고 있다	9.7	9.1	6.5	12.7	1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00)	((320)	(276)	(237)	(167)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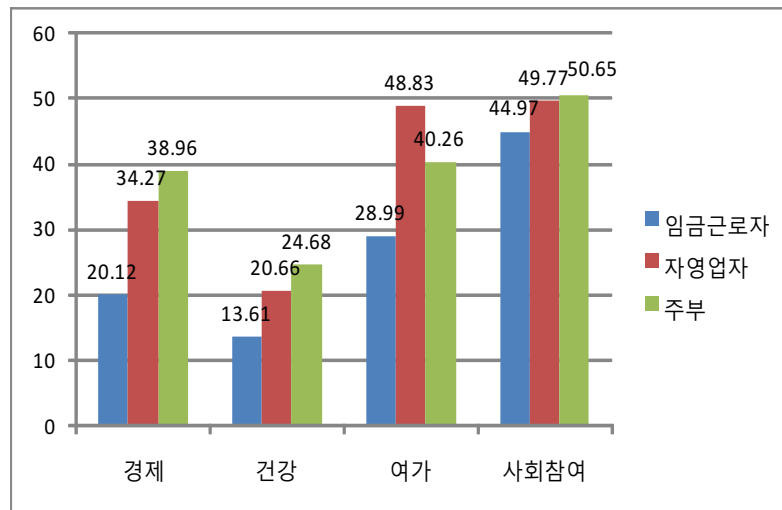
〈그림 4〉 베이비붐 세대의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설계서비스 국민인식 및 욕구조사』(2010) 원자료 재분석

□ 노후설계의 영역별 준비도를 비교해 보면 건강에 대한 준비도가 높은 반면 여가 및 사회참여의 경우 각각 41.3%, 49.14%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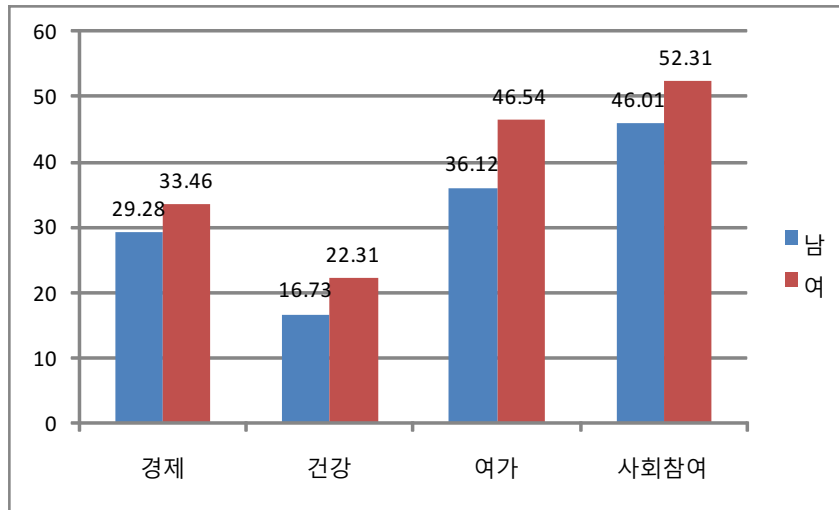
〈그림 5〉 노후설계 영역별 노후준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직종별 분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설계서비스 국민인식 및 욕구조사』(2010) 원자료 재분석

-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와 주부 가운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남
- 특히 경제적 준비와 여가에 대한 준비에 있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격차가 큼

〈그림 6〉 노후설계 영역별 노후준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별 분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설계서비스 국민인식 및 욕구조사』(2010) 원자료 재분석

- 영역별로 남성에 비해 여성 가운데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여가 영역의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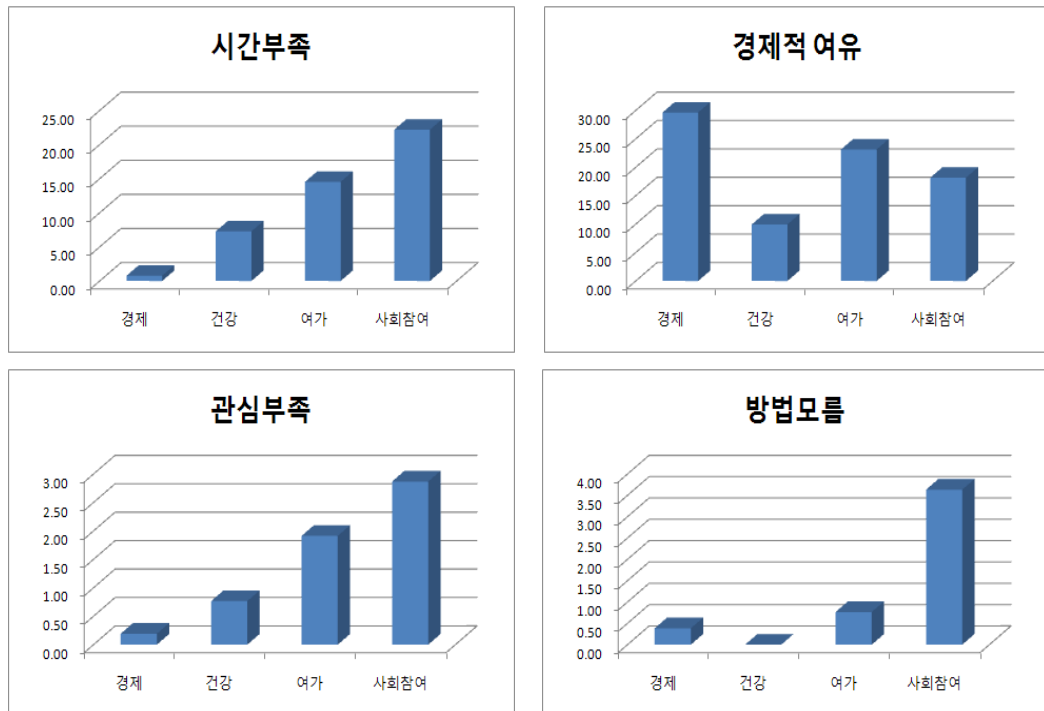
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 주요 어려움

- 노후준비 영역별 노후준비의 어려움
 - 경제적 노후준비의 주요 어려움은 경제적 여유와 관련
 - 베이비부머가 경험하는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의 어려움은 주로 시간의 부족

및 경제적 여유와 관련되며 특히 타 연령집단(55세~64세)에 비해 시간의 부재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가준비의 어려움 역시 시간의 부재 및 경제적 여유와 관련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타 연령집단에 비해 관심 부족 비율 높음
- 사회참여 준비의 어려움은 시간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타 영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남. 또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도 타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7〉 노후준비의 주요 어려움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설계서비스 국민인식 및 욕구조사』(2010) 원자료 재분석

□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사회참여의 경우 시간부족, 관심부족, 방법에 대한 지식 부재 등의 원인을 주요 어려움을 응답한 비율 높게 나타남

4)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설계서비스 욕구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율 및 경험율

- 베이비붐 세대의 28.2%만이 노후설계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경험해 본 사람들의 비율은 24.4%에 불과

〈표 10〉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율

(단위: % 명)

구분	인지율	경험율
성	24.0	18.2
남	32.5	28.9
여		
학력	31.0	22.2
중졸이하	23.9	16.1
고졸	32.2	32.8
대졸이상		
월수입	30.0	11.1
100만원 미만	22.2	22.2
100-200만원미만	21.3	27.3
200-300만원미만	26.9	25.7
300-400만원미만	34.2	28.0
400-500만원미만	36.3	22.7
500만원 이상		
근무직종	31.1	30.3
관리자·전문직	20.8	40.0
사무직	26.7	19.4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0.6	28.6
농·임·어업	24.3	5.6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33.0	26.3
주부 및 기타		
계	28.2 (159)	24.4 (3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2008) 원자료 재분석

□ 노후설계 서비스 참여 희망율

- 베이비붐 세대의 42.4%는 노후설계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36.4%는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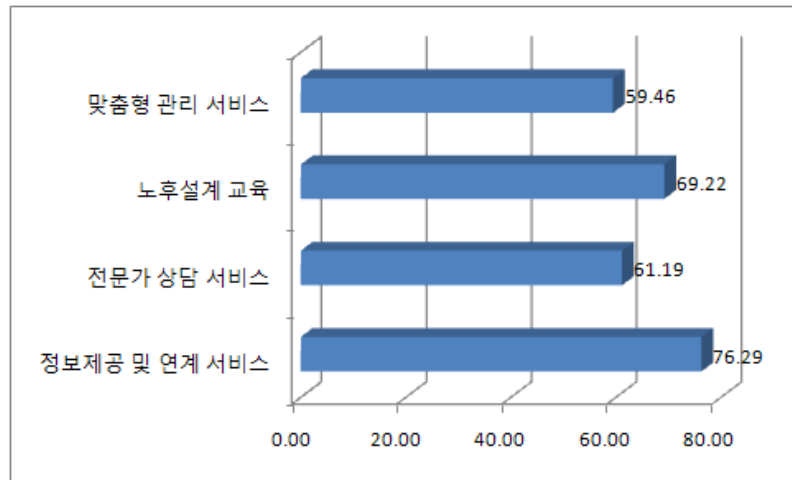
〈표 11〉 향후 참여희망율

(단위: % 명)

구분	매우 참여	참여하고 싶은편	보통	별로 참여하고 싶지않음	전혀 참여하고 싶지않음	계
성						
남	3.6	33.5	18.9	36.7	7.3	100.0(275)
여	6.1	41.8	23.8	26.1	2.3	100.0(261)
학력						
중졸이하	7.4	38.9	22.2	28.7	2.8	100.0(108)
고졸	5.0	41.0	18.4	29.7	5.9	100.0(239)
대졸이상	3.2	31.9	24.5	35.6	4.8	100.0(188)
월수입						
100만원 미만	3.4	37.9	10.3	41.4	6.9	100.0(29)
100-200만원미만	2.6	39.7	21.8	33.3	2.6	100.0(78)
200-300만원미만	6.8	38.8	21.4	28.2	4.9	100.0(103)
300-400만원미만	7.1	38.6	22.8	27.6	3.9	100.0(127)
400-500만원미만	4.5	34.3	22.4	32.8	6.0	100.0(67)
500만원 이상	2.5	37.0	23.5	33.6	3.4	100.0(119)
근무직종						
관리자·전문직	3.0	27.3	25.3	41.4	3.0	100.0(99)
사무직	.0	41.2	25.5	29.4	3.9	100.0(5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3	37.4	14.8	35.7	7.8	100.0(115)
농·임·어업	9.4	37.5	15.6	37.5	.0	100.0(32)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9.5	41.9	18.9	24.3	5.4	100.0(74)
주부 및 기타	4.8	40.6	24.2	25.5	4.8	100.0(165)
계	4.9 (26)	37.5 (201)	21.3 (114)	31.5 (169)	4.9 (26)	100.0 (53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2008) 원자료 재분석

〈그림 8〉 베이비붐 세대가 필요로 하는 노후설계 서비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설계서비스 국민인식 및 욕구조사』(2010) 원자료 재분석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노후설계 교육 서비스>전문가 상담 서비스>맞춤형 관리 서비스 의 순서로 나타남
-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4.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1) 노후설계 지원체계 구축의 원칙

□ 다양성

- 노년기에 속한 개인은 같은 연령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적이지만 동시에 저마다 상이한 인생경험과 상이한 자원과 상이한 가치관 등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
- 이렇듯 다양한 생애주기를 거치며 다양한 자원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별로 노후설계의 내용과 방법 또한 다양해야 함.

□ 형평성

- 노후설계에 참여하는 주체가 특정 집단(예컨대, 도시에 거주하고, 학력수준과 직업계층이 높은 소위 '상류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면 생애 경험과 가지고 있는 자원 등에 무관하게 누구나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사 결과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직업계층이 높을 수록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도와 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특성을 제도설계시 반영하지 않으면 자칫 노후설계가 이미 자원을 가진 특정층이 주요 혜택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성공적인 노후설계는 나머지 인생 후반부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만일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제1기, 2기 인생의 계층적 격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의 계층적 격차가 더욱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 포괄성

- 노후설계의 영역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영역을 모두 포괄해야 함.
- 개인의 자원과 욕구에 따라 영역별 중요도와 비중은 달라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노후설계를 통해 노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노후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심도있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 전문성

- 노후설계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콘텐츠의 질에 의해 좌우될 것
-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전문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의 설립, 노후설계사 자격증에 관한 제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노후설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 민간기관의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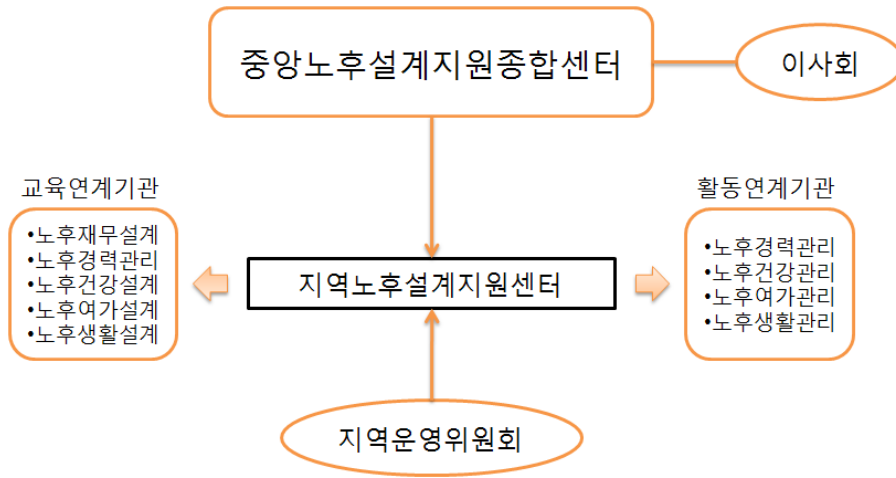
- 이미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며 또 잠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존재. 이는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음

<표 12>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가능기관 장단점 비교

유관기관	장점	단점
국민연금공단	· 접근성 용이(지역 접수창구) · 대상의 적절성(4,50대) · CSA 양성프로그램 보유 · 재무영역 강점	· 비재무영역 서비스 취약 ·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미흡 · 전문인력의 범위 협소(공단인력 활용) · 사후관리 서비스 한계
노인인력개발원	· 노후설계 교육컨텐츠 보유(SLCA) · 일자리 연계서비스 강점	· 전국적 인프라 부족(접근성 미흡) ·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미흡 · 사후관리 서비스 한계
사회복지관	· 접근성 용이 ·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강점 · 중장년층 대상 사업 경험 · 사후관리(사례관리) 전문성 · 기존 전문가(사회복지사) 활용	· 사회적 편견(저소득층 중심 사업수행 기관) · 지자체별/지역별 인프라의 편차
노인복지관	· 지역내 접근성 용이 ·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강점 · 사후관리(사례관리) 전문성 · 노인복지서비스 노하우 · 노후설계서비스 프로그램 보유 · 기존 전문가(사회복지사) 활용	· 중장년층 대상 사업수행 경험없음 · 중장년층의 인지적 접근성 낮음 · 지자체별/지역별 편차
건강가정지원센터	·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보유 · 기존 전문가(건강가정사) 활용	· 다양한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 미흡(가족 자원중심 사업 수행) · 접근성 미흡

- 이들 기관들이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 자원을 보다 협력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그림 9〉 노후설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노후설계 콘텐츠 개발

- 일반인 대상 노후설계 교육 콘텐츠, 전문가 대상 노후설계 교육컨텐츠로 구분하여 표준안 개발 필요
- 노후설계 가이드 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정보포털 구축, 노후생활 매뉴얼 발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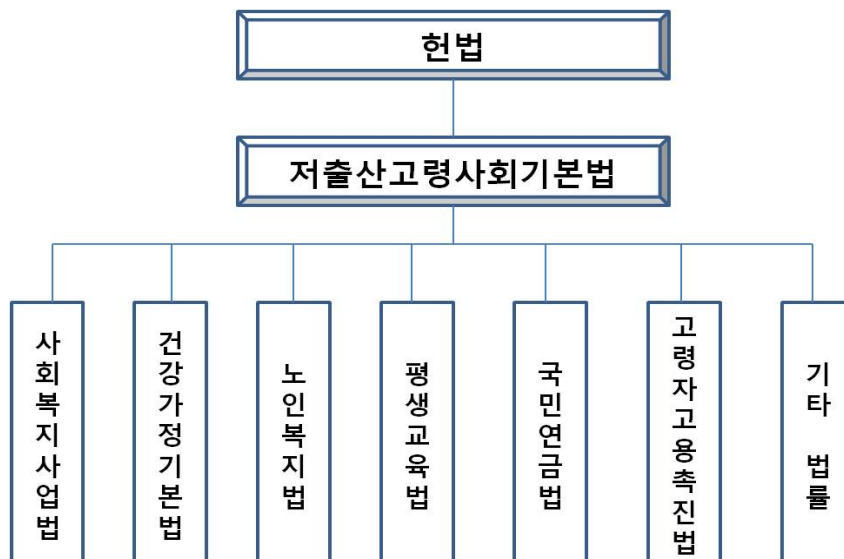
□ 노후설계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 마련

-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및 자격증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서비스 제공 주체인 노후설계 전문가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또한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안 등의 개발 필요
- 노후설계서비스 위탁기관 지정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설치, 노후설계서비스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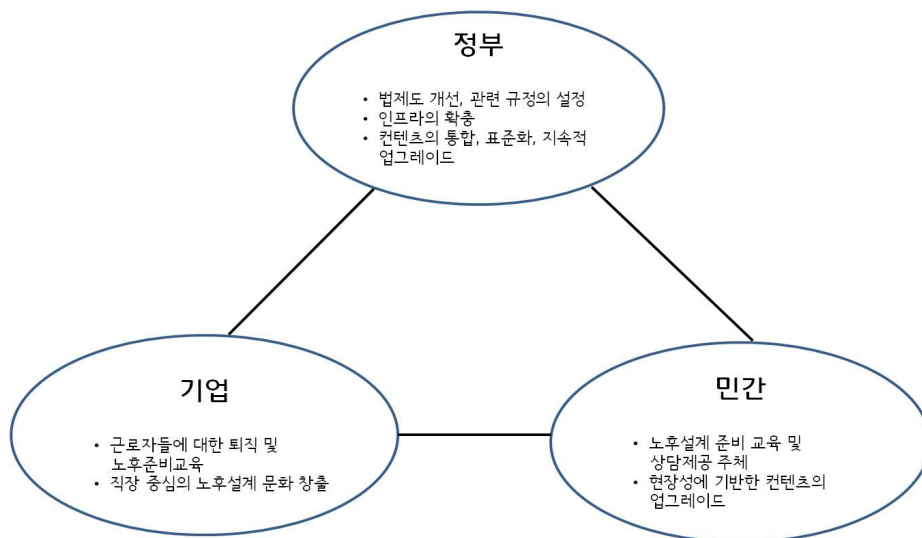
□ 전국민의 노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화 방안 마련

-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 검토 필요
- 각각의 법률은 독자적 제정목적, 입법목표도 상이.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도 고려해야 함

〈그림 10〉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법률의 체계 및 내용



□ 성공적 노후설계 기반 마련을 위한 주체별 합리적 역할분담 체계 구축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 류재룡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부회장)
-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차장)



노후 준비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 노인종합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발표

류재룡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부회장)

대전 유성구노인종합복지관장)

I. 노후 준비 관련 서비스 제공 필요성

1.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노후관련서비스 제공 필요성 제기

1) 노인인구 급격한 증가

- 2018년 14.3% → 2026년 20.8% → 2050년 37.3%(1위)
- 초고령지역 63개, 초초고령지역 14개 지역
- 고령화시대에서 초고령시대 26년 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

2) 저출산 하락

- 저출산 : 05년 1.08명 → 2008년 1.19명 → 2010년 1.15명
- 자녀출산의식 저하 : 1991년 90.3% → 2000년 58.1%
- 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 인식 증가

3)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

- 생산 가능인구 감소 : 16년 3,650만명
- 생산 가능 평균연령 상승: '05년 38세 → '20년 41.8세

4)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 증가

-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
- 노인부양비율 감소 : '05년 7.2명 → '20년 4.6명 → '50년 1.4명
-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부담 : '05년 4.8명 → '50년 0.65명

5) 국민연금의 사회적 부담 가중

- 2003년 기준으로 하면 2036년 에는 적자가 시작되고 2047년 이면 고갈이 된다

6) 노인의료비 사회적 부담 급증

- 의료비증 증가 : '04년 8.7% 이나 의료비율은 22.9%를 차지함
- 의료비 증가 '90년 2391억원 → 04년 5조 1097억원(21배)
- 1인당 의료비 증가 :
'05년 92만원 → '20년 310만 → '30년 641만 → '50년 2890만원

7) 치매 중풍 요양서비스의 증가

- 요양노인 증가 : '03년 59만명 → '20년 114만명
- 요양비용 증가 : '03년 3조 4천억 → '20년 8조 3천억원

8)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노동시장 : 노동공급의 감소 ('20년)로 경제규모 축소
- 자본시장 : 고령화로 인한 총저축 축소
- 정부재정 : 경제성장둔화로 재정지출 급증
- 사회적 변화 : 노권충, 세대간 갈등, 노인문제 다양화

9) 다문화 시대 도래

- 외국인 120만 시대
- 다문화 가족 급증
- 다민족 포용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개선
- 외국인 차별문제와 범죄문제 두드러짐

2. 한국경제 기초체력의 약화로 인한 노후준비서비스 필요성 증대

1) 민간소비 축소

- (1) 소득증가율 하락
- (2) 민간소비핵심 계층의 중산층 붕괴 : 96년 68.5% → 2006년 58.5%
- (3) 한계소비성향 하락 : 교육, 보건, 보험, 연금 지출이 원인
- (4) 내수산업의 영세
- (5) 농업기반의 붕괴
- (6) 국외소비 급증 : 국외여행소비 연평균 12.9% 증가
- (7) 인구증가율 감소로 소비기간 축소

2) 부채의 급속한 증가 (2009년 GDP 2.2배)

- (1) 가계 기업, 정부 총부채규모 2586조 (10년 12월 현재)
 - 2008년 2000조에 비해 25%증가
- (2) 정부 : 367조 / 세금이 축소되고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
- (3) 기업 : 1282조
 - 부실중소기업이 급증 (97년이전 9.9% → 09년 13.2%)
- (4) 가계부채 : 937조 7495억원
 - 소득대비 대출 비율이 꾸준히 상승

3. 베이비붐 세대 등장으로 중년시대의 발견과 의미 추구

1) 중년의 정의

- 중년기를 육체의 노화,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자각과 결혼의 불만족. 과거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지 못함으로 느끼는 좌절 그리고 부모의 질병, 사망 혹은 자녀들의 독립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에릭슨)

2) 중년의 심리적 위축 원인

- 노화 불안심리와 회춘심리 양가감정
- 결혼의 불만족 (40대는 불혹의 나이가 아니라 유혹시기)
- 개인이 성장기 때 경험한 비친화적 요소가 나타남

3) 중년의 긍정적 의미

- 살아온 시절과 남은 시간을 성찰하는 시기
- 죽음으로 인해 인간의 창의성으로 한단계 성장

4) 중년의 사회심리적 단계 과제

(1) 생산성

- 생식성: 후손에 대한 바른 가치와 경험으로 안내
- 생산성: 일을 창출하는 것, 일에 혼과 정신을 쏟음
- 창의성: 새로운 잠재성들을 창출하는 창의적 노력

(2) 중년에 대한 요약

- 부모세대에 대한 돌봄과 성장하는 세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운명과 제한성에 대한 숙연한 운명이며 짧은 후반에 대한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 누미너스모델 :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의미
- 힘을 사랑과 관용 그리고 용기로 관계망을 형성할 때 진정한 중년모델 형성

4. 베이비붐 세대(중년세대)에 대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 1) 고령화로 인하여 길어진 30년은 중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함
- 2) 인생 후반전을 의미지향적 삶으로 지향하도록 함
- 3)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준비된 중년의 삶의 모델 형성
- 4) 고령화 위기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장기적 접근 필요
- 5) 고령위기를 넘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 6) 은퇴 직전보다는 직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어 직장환경 변화 유도

II. 노인복지관의 노후 준비 관련 서비스 사례

1. 중년 세대의 전문성과 지역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 1) 노인복지관이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프로그램 관심 증가
- 2) 베이비부머 은퇴 전후 노년기 적응을 돕는 노인복지관 증가
- 3) 베이비부머 프로그램은 참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됨
- 4) 중년부터 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주축으로의 주도적 역할 부여

□ 아름다운 중년학교 (유성구노인복지관)

- 대전 유성구노인복지관과 배제대 복지신학과가 함께하여 중년 리더십 개발과 노후 준비 모임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시행됨
- 베이비부머가 생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 함
- 후배들로부터 ‘앙꼬르’라는 함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의미있는 삶을 목표로 함
- 아름다운 중년학교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40명의 정기회원을 확보 노력
- 아름다운 중년 모임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확대 준비

□ 준고령자를 위한 사회환원 프로그램 ‘인재마루’(종로노인종합복지관)

- 베이비부머(1946~1964)들과 기존노인세대가 어우러져 성공적인 신노인 모색
- 전문기술반, 전문봉사반, 자격증반으로 1년~6개월 과정으로 운영
- 교육 이수 후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강사활동 등 자원봉사자로 활동

교육 과정	교육 내용
전문 기술반	노인상담, 컴퓨터 수리, 예절
전문 봉사반	손뜨개 봉사, 동화구연 봉사, 마술 봉사
자격증반	한자급수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일본어능력시험

□ 최고위 명강사 과정 (서초구립중앙노인복지관)

-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 분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라는 목적
- 6개월 이론과 실습 강의로 제2의 인생에 대한 의미부여
- 경륜과 지식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달하여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도움
- 2009년 10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11회에 걸쳐 주1회별 소양교육
- 수료한 회원들은 전문강좌를 개설해 지식의 사회환원에 앞장

2. 취미 여가 지원 서비스

- 1) 전국 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교육, 동아리 형식의 취미 여가 서비스가 지원
- 2) 건강한 노년을 위한 어학, 운동, 문화예술 등 사회교육과 동아리 프로그램 실시
- 3)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지역 노인복지관들은 베이비 붐 세대 등 새로운 시대 상황에 발맞춘 취미 여가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 노인 여가 매트릭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고령사회의 도래와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여가 서비스 연계를 위한 노인 여가 매트릭스 전산화 사업을 시범 운영
- 기존의 취미 여가 서비스들은 찾아오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심
- 베이비 붐 세대를 대상으로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명확히 하고
- 여가 플랜에 따른 전문적인 여가 서비스 연계 및 지역 여가 정보를 제공
- 시범 사업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 각 1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
- 2010년 개발된 노인여가 매트릭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지관 현장 운영 및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2011년 올해 전산화 과정으로 전국 노인복지관에 확대할 예정

□ 노인 여가 설계 집단 프로그램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 노인의 여가 활동 프로그램인 '위풍당당 Senior'가 진행
- 노인의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한 여가교육, 여가사정 및 계획, 여가활동 등
- 노인여가 대한 필요성 교육, 어울림·나눔·지혜·건강 등을 테마로 한 여가활동
- 위풍당당 Senior 주요 프로그램
 - 여가 필요성 및 선호 프로그램 조사, 여가자원 만들기, 실/내외 집단 프로그램 등

3. 온라인 창업 지원 교육

- 1) 급속한 정보화, 세계화, 베이비붐의 본격 출현, 귀농인구의 증가에 대비
- 2) 은퇴 후에도 IT를 기반으로 한 생산인구로의 참여를 통해 소득보장과 노후보장
- 3)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지원으로 2009년 사업실시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1 어르신온라인창업 아카데미
[온라인판매를 위한 판매자와 생산자 양성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1yrs)
- 참여인원 : 320명
 - 판매부분 : 200명(4센터 * 2회기 * 25명)
 - 생산부분 : 120명(4센터 * 2회기 * 15명)
- 참여대상 : 만 55세 이상 온라인창업에 관심있는 자 및 제품 판매가 가능한 자

□ 주요내용

- 판매센터
 - 도시를 중심으로 판매를 위한 센터를 선정하여 사업지원
 - IT와 창업을 주입으로한 온라인 창업 전문교육 실시
 - 전년도 참여자를 포함한 수료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교육 및 자문)으로 창업동기 부여
 - 센터별 담임제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 생산센터
 - 농촌을 중심으로 생산을 위한 센터를 선정하여 사업지원
 -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된 광역판매센터에서는 판매가능한 물품의 개발 및 지원을 통한 물품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센터별 어르신팀장을 1인씩 두어 참여자 중심의 조직운영
(소정의 활동비 및 인센티브 지급)

○ 공통

- 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교재 개발, 사업자문)
- 참여자간 정보 및 경험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4. 노년기 적응 지원 서비스

- 1) 최근 노인복지관들은 예방 차원의 다양한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 2) 노후 준비를 위한 노년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들이 등장
- 3) 건강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실버플래너 육성 사업이 시범운영
- 4) 노년기 부부, 남성 노인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 5) 집단상담 형태로 치매, 대인관계, 우울증 등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운영으로 건강한 노년기 적응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

□ 실버플래너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2007-2009년 중앙모금회의 테마사업으로 노후설계를 위한 노인강사양성사업
- 노년기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교육으로 사업 참여 실버플래너들과 이들에 의한 교육 수혜자들의 노후 설계 역량 및 노인인식개선에 대해 지역사회에 기여
- 현재 개 기관별로 실버플래너 활동이 노인복지관 리더 활동 형식으로 지속.
- 실버플래너 등장 배경과 특징
 - 정년퇴직 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트리플 30'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설계 전문가, 이른바 '실버 플래너'가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
 - 실버 플래너는 행복한 노후 생활에 초점을 맞춰 삶의 가치를 담은 라이프 맵을 그려주는 게 특징

○ 실버플래너 목적

- 점차 길어지는 제3의 인생에 대하여 노년의 삶을 계획
- 생애주기에 맞추어 삶의 가치를 담은 라이프 맵을 그려 줌
- 모든 노인의 건강한 노후, 행복한 노후, 보람 있는 노후, 생산적 노후 제공

○ 목표

- 실버플랜 교육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실버플랜을 짤 수 있다.
- 실버플랜 교육을 통하여 실천현장에서 봉사할 수 있다.
- 실버플랜 교육을 통하여 동년배 어르신을 리더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 실버플래너 육성

- 한국노인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육성, 2007년-2009년 3년간 750명을 지역 노인복지관에 파견.
- 노·노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
- 노인의 삶 관련된 건강, 대인관계, 일자리 및 자원봉사, 노후 설계, 죽음 등 다섯 가지 영역을 중점
- 시니어 층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

○ 실버플래너 교육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즐거운 노년을 가꾸는 건강	- 자가진단법 - 한방 쪽에서 건강 (신체, 한국인 사성체질) - 양의 쪽에서 건강 (신체, 노인질환과 예방, 간단한 처지등) - 생활 속에서 건강 (음식, 습관, 생활규칙, 여가선용등) - 운동 속에서 건강 (간단한 운동, 생활체조, 건강체조등)
따뜻한 노년을 유지하는 관계(대인관계)	- 의사소통 - 상담기술 - 대인관계기술 - 노인의 이해

구 분	주요 내용
일자리 및 자원봉사	- 노인일자리 이해 (노인일자리 이해, 일자리 현황, 일자리 실습) - 자원봉사 (자원봉사의 이해, 자원봉사 현황, 자원봉사의 실천)
튼튼한 노년을 관리하는 노후설계	- 노인복지의 이해 - 노인문제 전반적 이해 (자살, 성, 이혼등) - 경제적인 면에서 노후설계 - 가족적인 면에서 노후설계 - 여가적인 면에서 노후설계 - 종교적인 면에서 노후설계 - 생애설계지원 노후설계
지혜로운 노년의 삶의 마 무리(죽음)	- 죽음에 대한 이해 - 죽음준비에 대하여 - 호스피스에 대하여 - 장기기증에 대하여

□ 노년기 부부 대상 관계개선 프로그램 (성남 중원노인종합복지관)

- 노년 부부 관계개선을 위한 ‘은빛부부 아카데미- 우리들만의 행복한 시간’ 운영
- 2010년도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지원
- 어르신 부부를 대상으로 노년기 부부 관계개선을 위해 배우자와 서로를 이해, 지지, 격려함으로서 노인성 우울증 및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하여 효과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은빛부부 아카데미 주요 프로그램
 - 나와 배우자 이해하기, 부부간 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 부부사진 촬영, 부부가 함께 떠나는 여행, 리마인드 웨딩 등

□ 애니타임투게더(Anytime Together)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부부 일심동체 프로젝트 ‘애니타임 투게더’를 운영
- 노년기 부부의 긍정적 인식개선 및 관계형성을 위한 부부대화 프로그램
- 노년기 결혼생활에 대한 이해, 부부의사소통방법, 친밀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

그림

○ 애니타임 투게더 주요 프로그램

- 부부이벤트, 부부특강, 부부커플티구매하기, 부부 마사지교실,
- 부부요리교실, 부부의 날 행사, 부부의 날 프로포즈데이 행사,
- 의사소통 프로그램 14회기(부부캠프 포함), 자조모임 등

□ 부부사랑 아카데미(실버벨노인복지관)

- 만 55세 이상의 부부를 대상, 건강한 부부상 완성을 위한 ‘부부사랑 아카데미’ 퇴직 후 부부의 노년생활을 위한 준비 교육, 부부간의 유대관계 증진 및 취미 여가 활동 제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
- 부부사랑 아카데미 주요 프로그램
 - 부부상담, 부부레크리에이션, 치매예방교육, 성(性)교육, 마사지, 웨딩사진촬영 등

□ 남성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청주노인종합복지관)

- 남성어르신의 경우 음식조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의존
- 특히 혼자 사시는 남성어르신의 경우 음식조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뭄
- 예비 독거 남성어르신과 더불어 독거 남성어르신들을 위한 요리교실을 실시
- 자립적인 식사해결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식생활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
- 전주 서원노인복지관의 ‘나~ 요리하는 남자야’, 청주노인종합복지관의 ‘요리쿡 조리 쿡’ 요리교실 프로그램이 진행

□ 스트레스 해소와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대구노인종합복지관)

- 1) 사회적 부적응에서 오는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공허함 충족
- 2)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 3) 어르신의 현실적인 이해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태도와 능력을 향상

- 4)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보다 나은 노년기의 개인 및 대인관계 형성을 도모
- 5) 다양한 집단 활동을 통하여 서로간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지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루게 함
 - 노년기 행복찾기 프로젝트! 주요 프로그램
 - 친밀감 형성 및 자기소개하기, 상호작용 증진활동, 회상작업을 통한 자기수용,
 - 성취감 증진 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미술작업, 협동작업 등
 - 음악치료집단상담 주요 프로그램
 - 노래 부르며 율동하기, 즉흥 연주를 통한 감정 표현
 - 옆 사람과 스카프 잡고 음악에 맞춰 함께 스트레칭 하기
 - 자신의 인생을 포물선으로 표현한 악보 만들기,
 - 가장 인상 깊었던 추억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하기 등
 - 자서전쓰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 연대표 작성하기, 인생 그래프 그리기, 나의 흥미와 관심에 대한 글쓰기,
 - 나의 이별경험, 유서쓰기 등

□ 노년 우울증 예방 집단프로그램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 1)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노년우울증을 겪고 있음
- 2) 노년우울증을 사전에 예방
- 3)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 ‘인생은 아름다워’,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함께 누리는 행복여행’ 프로그램이 운영
- 4) ‘인생은 아름다워’는 어르신의 우울증 경감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강북 삼성의료원 임상심리실장 이정애강사의 긍정심리치료기법을 활용하여 매주 수요일 8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음
- 5) ‘함께 누리는 행복여행’은 우울증 예방과 더불어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으로 11명의 어르신들이 행복찾기 여행에 동행하고 계심.

- ‘인생은 아름다워’ 주요 프로그램
 - 긍정적 자기 소개서 작성, 스트레스 체크, 부정적 인지 대처 방법,
 - 정서교양 훈련, 낙관성 훈련, 용서 훈련, 생애곡선 작성하기 등
- ‘함께 누리는 행복여행’ 주요 프로그램
 - 전문심리상담사 1:1 상담, 자기개방과 타인과의 신뢰감형성,
 - 인생회상과 정리 및 통합을 위한 집단상담, 내 이름의 이미지,
 - 점토로 표현하는 자화상, 자연 속의 나, 악기로 표현하는 내 마음,
 - 액자 꽃꽂이 장식/풍란 숯부작, 사자캐릭터 휴지걸이 만들기(클레이아트),
 - 영화 관람, 원예치료/풍선아트/공예작업 등

□ 치매 예방 집단프로그램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치매야, 물러가라!’를 운영
- 지역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연제구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예방교육, 초기 치매 자가진단 및 선별작업 등을 진행
- 치매야, 물러가라! 주요 프로그램
 - 치매예방교육, 치매자가진단, MMSE-K 진단, 신문활용한 인지활동,
 - 대형 윗놀이, 실내골프, 대형고스톱, 천연 염색 손수건 만들기, 클레이 아트 등

5. 농어촌 지역 지원 서비스

- 1) 초고령화사회인 농어촌 지역에서도 노년 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 2)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해 농촌소도시 노인복지관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3) 현장에서는 귀농 인구의 농촌 지역 적응과 노년기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귀농돕기 프로그램 “참살이 농부학교”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

- 경기도 광주시와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일자리연계 특성화 사업
-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여 바른 먹을거리를 재배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참살이 농부학교"를 개설
- 타지역에서 광주로 전입하여 귀농(전원) 생활을 시작한 시민 혹은 광주에 거주하지만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 대상
- 복지관과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실습지에서 실습이 함께 이루어짐
- 참살이 농부학교는 전통농법의 농사 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우고, 전통농업 복원 및 생태농업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
- 생산된 친환경 농작물을 지역사회에 공급하여 바른 먹거리를 제공

□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 부산 기장군노인복지관은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의 지원으로 “기장군 이동 효 드림”사업을 통해, 매월 1회, 기장읍을 제외한 4개 읍·면 지역을 순회하고 11곳의 전문기관들과 연계 및 협력으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제공
- 음성군 지역 중 대중교통 불편, 농촌지역의 특수성, 노인복지관련기관 부족에 따른 노인 여가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4개 읍·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취미여가(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웃음치료)와 건강생활(서암뜸, 이미용, 공기압치료, 전기안마) 프로그램, 보건소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촌지역 순회사업 프로그램 “차즈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전남의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는 교육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한글 교육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를 위한 어르신문화교실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문화교실은 전직교사 출신 선생님들을 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식, 수학여행, 졸업식 등 학교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어 농촌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 참고자료: 아름다운 중년학교(양꼬르 커리어를 향하여)

1) 중년학교 장기목표

(1) 고령화사회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정기적 고령사회 위한 연구모임 및 세미나 실시
-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공동대책 장기계획 수립
-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2) 중년 프로그램의 정착과 보급

- 복지기관과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중년프로그램 개발과 교류
- 중년을 위한 리더십개발 프로그램 제공
- 중년에 맞는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3) 중년으로써 삶의 정체성 확립

- 중년 관련된 서적을 통한 중년의 상 제시
- 중년으로서 비전과 역량개발, 훈련, 실천

2) 중년을 위한 단계적 교육

(1) 복지기관과 연구소와의 협력하여 회원 확보

(2) 중년을 위한 기본과정, 심화과정후 전문과정으로 편입

(3) 중년에 필요한 각 전문과정 (가족, 경제, 여가, 건강)후 지도자과정 편입

(4) 각 분야별 지도자과정으로 중년 리더십 개발

3) 중년학교 실제운영

(1) 중년학교 목표

- 중년과 노년에 이르는 각 부분에 대한 기초이해를 통한 정체성 확립
- 친교를 통한 아름다운 중년학교 공동체 정신 구현
- 홍보를 통한 회원확보

(2) 운영방식

- 1년간 기본과정으로 세미나를 가지고 토론회 가짐
- 조편성을 통하여 서로 연락하고 지지
- 회비와 지원금으로 운영
- 주 1회 3시간으로 12주 과정

(3) 중년학교 커리큘럼

날 짜	강 의 제 목
9월8일	오리엔테이션 및 친교모임
9월15일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
9월22일	은퇴후 희망설계 333
9월29일	효율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
10월6일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가족관계 변화
10월13일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건강관리
10월20일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재산관리
10월27일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성공적 노후
11월3일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여가생활
11월10일	은퇴 후 제2의 직업
11월17일	실제 자원봉사
11월24일	세미나 모임 및 수료

4) 중년학교 의의

- (1) 다양한 영역에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 (2) 다양한 경험교류의 장이 됨
- (3) 사회적 영향력을 통한 사회적 환경변화
- (4) 바람직한 중년의 삶 모델 제시
- (5) 베이비붐 세대의 위기 극복
- (6) 은퇴준비는 빠를수록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음

5) 중년학교를 실제 운영상의 문제들

- (1) 중년들이 너무 바빠 결강이 많음
- (2) 초기로서 중년학교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되지 어려움이 많음
- (3) 중년학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 회원모집의 어려움
- (4) 초기환경 구성을 위한 비용이 많음
- (5) 중년학교와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

6) 중년학교의 의미 (양꼬르 커리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고령화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현실에 대하여는 둔감하다. 모두 다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노인, 은퇴, 노후준비 등 노인관련 단어만 들어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해 버리고 바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바로 지워버린다.

우리 고령화 현실을 보면 그저 안주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가 대략 710만 명인데 평균퇴직 연령을 55세로 보면 2010년부터 퇴직하게 되고 불과 9년 사이에 엄청난 사람이 퇴직하게 된다. 향후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가 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부양지수 증가, 노인세대 급증,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갈,

경제성장의 둔화등 사회적 문제들이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개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갈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앞으로 고령화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노인과 여성인력을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국가가 이 일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는 민간에서도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특별히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전과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소비형이 아니라 생산적 삶을 살아간다면 고령화의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베이비부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 양꼬르라는 함성을 후배들로부터 듣는다면 정말 이처럼 의미있는 삶이 어디 있을까?

노후 준비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 국민연금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

사례발표

이여규 차장(국민연금공단)

I. 사업 개요

□ 서비스의 정의

국민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과 노후생활 관련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 제공**

전 국민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다각도의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노후설계 상담 서비스

- 노후준비진단 및 정보제공
- 다층소득보장 설계
- 영역별 사회자원 연계

노후설계 교육 서비스

- 찾아가는 노후설계 교육
- 정기강좌 및 아카데미
- 영역별 합동설명회

노후설계 온라인 서비스

- 노후준비 자가 점검
- 노후설계 정보 제공
- 무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 (상담) 재무와 비재무영역의 균형있는 노후설계 지원
 - (재무상담) 공단이 객관적 입장에서 공익적 재무설계 상담 제공
 - (생활상담) 일·건강·여가 등 노후생활설계를 위한 One-Stop 종합정보 제공
 - (연계서비스) 영역별 사회자원에의 연계서비스 제공
- (교육) 전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유관기관과 교육 연계 및 자체 강좌 운영
- (온라인서비스) 노후설계종합포털 「내연금」을 통해 노후준비 자가 점검프로그램, 노후설계에 필요한 정보, 온라인상담, 노후설계 무료 교육프로그램 등 제공

II.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연금법('09.5.1 시행)

제25조(공단의 업무)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상담, 소득활동 지원**

제46조의3(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 공단은 법 제4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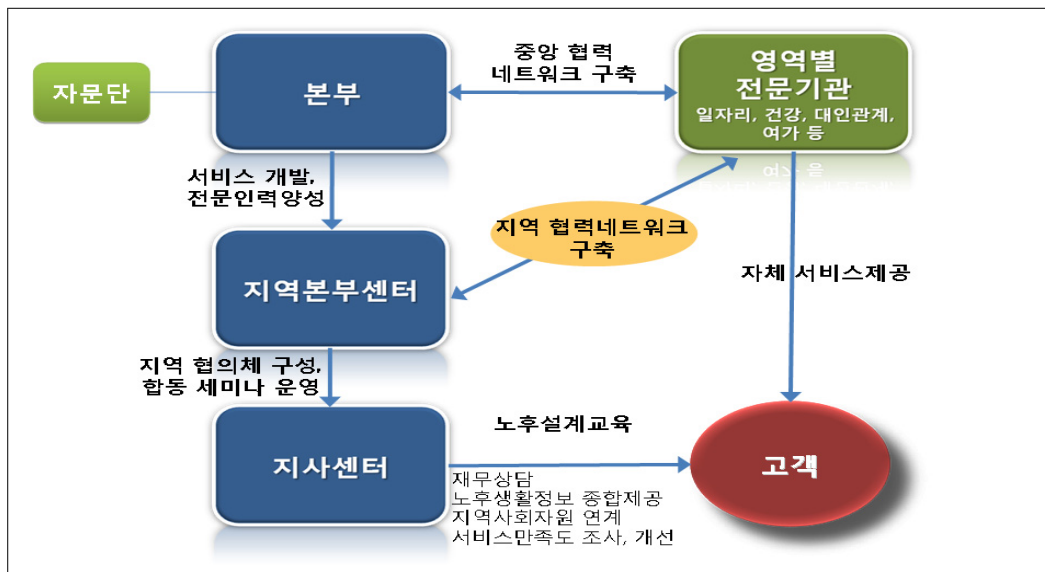
1. 국민연금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종합 상담**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의 연계 및 **일자리 전문기관과의 연계**
3. 건강, 주거, 대인관계, 취미, 여가 등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 및 연계**
4. 노후설계 상담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

III. 그간의 추진경과

-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 **조사 전담인력** 배치 ('03.4)
- 권역별 7개 지사 **시범사업** 실시('07.10 ~ 12)
- 노후설계서비스 **전 지사 실시**('08.4 ~)
- 노후설계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09.5.1 시행)
 - *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및 제46조의3(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 '11년 복지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과제로 선정 및 **연두 업무보고**
- 기획재정부 주관 「**100세 투자사회**」 프로젝트 복지부과제로 선정('11.3)
 - * 노후설계교육 활성화 - 행복노후설계센터 구축
- **140개 행복노후설계센터 설치 및 서비스 선포식 개최**('11.4)

IV. 사업 수행 체계

□ 서비스 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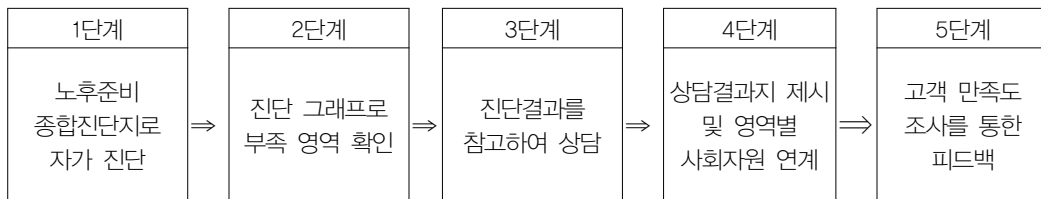


V. 서비스 내용

□ 노후설계 상담



○ 프로세스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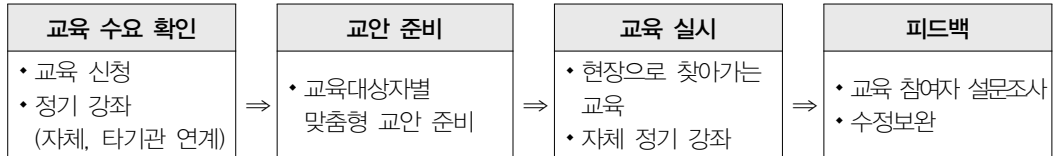
노후소득보장 상담	고객의 지역별·개인별 생활수준에 맞는 노후 필요자금을 산출하고,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을 최대한 준비토록 설계해 주며, 나머지 부족 자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토록 상담하여 고객의 노후소득 준비에 기여
노후생활 상담	고객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건강, 일, 대인관계, 주거, 여가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및 사회자원 연계

○ 연령대에 따른 적용

구분	연령대	주요 이슈	주요 내용	사회자원 연결
재무	20-30대	결혼 준비 가족 형성	◦결혼, 주택 마련 자금 준비 ◦합리적 소비 지출 및 부채 관리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40-50대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자녀 교육 및 결혼 자금 마련 ◦개인연금·퇴직연금 정보	
	60대 ~	노후 자금	◦즉시연금, 주택연금 활용 ◦기초노령연금 상담 및 접수	
일	20-30대	직업 선택	◦노동부 워크넷 채용정보 ◦직업훈련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지역사회활센터 ◦한국시니어클럽협회
	40-50대	조기 퇴직	◦재취업 및 창업 준비 ◦퇴직자 교육 훈련	
	60대 ~	노후 자금	◦노인 일자리 제공 기관 ◦직업 훈련 무료서비스 기관	
건강	20-30대	노화 시작	◦노화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노인장기요양센터 ◦한국치매가족협회
	40-50대	질병 예방	◦성인병 종류와 예방, 식이요법 ◦갱년기 극복	
	60대 ~	노화 지연	◦노후 식생활, 운동, 수면 관리 ◦치매 예방, 장수 비법	
주거	20-30대	주택 준비	◦청약통장 활용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40-50대	주택 마련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해외 은퇴이민, 전원생활	
	60대 ~	주거 환경	◦노년기에 적합한 주거환경 ◦노인 복지시설 및 실버타운	
대인 관계	20-30대	가족 형성 사회 참여	◦가족 관계 형성 시 유의사항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
	40-50대	역할 증가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개선 방법 ◦좋은 인간관계 형성 10계명	
	60대 ~	관계 축소	◦원만한 노년기 사회관계 유지	
여가	20-30대	취미 위주	◦지역별 여행정보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주민자치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40-50대	여가 부족	◦문화바우처 사업 안내 ◦자원봉사	
	60대 ~	시간 증가	◦지역별 축제 및 행사 정보 ◦자원봉사 등 노인 여가프로그램 안내	

□ 노후설계 교육

○ 프로세스



○ 주요 내용

- **(생애주기별 교육)** 성장기, 활동기, 은퇴기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노후준비 필요성 전파 및 각 시기에 맞는 적합한 노후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
- **(취약계층 교육)**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 가계자산과 저축관리, 건전한 소비습관과 대출관리 등 가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및 노후준비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후준비 기반 마련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설계 교육 추진

- **학생 대상 '미래 설계' 교육 ⇒ 바람직한 인구관 및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형성**
 - 중·고등학교 사회·경제교과서에 노후소득 보장제도 등 수록 추진
 - 학교 재량활동시간에 교과 수록내용과 연계한 강의, 「청소년 국민연금 사회봉사·교육프로그램」, 초등학생 여름캠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대학과 협조하여 사회복지학, 경제·경영학과 등 대학생 대상 특강
- **근로자·자영업자 대상 '생애 설계' 교육 ⇒ 생애주기에 맞추어 재무·비재무영역의 균형있는 노후준비**
 -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직원 소양교육 참여

- (민간기업) 신입사원 연수과정, 소양교육시간, 택시회사 근무교대시간 등 활용
- (자영업자) 개인택시조합, 음식점중앙회, 이미용사협회 등 각종 직능단체의 교육 시간, 세무사·노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사 신규 및 보수교육 과정 참여
- (일반주민)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원(경기5563프로젝트 등), 민방위대원 및 예비군 교육시간, 유관 교육기관 정기강좌에 생애설계 교육과정 개설·운영

*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은퇴기 국민 대상 은퇴설계 교육 ⇒ 활동적 고령화 실현**

- 베이비 붐 세대 대상 노후준비 합동설명회 개최
- 사업장 퇴직 프로그램 참여
- 노후설계아카데미(10시간 내외), 노후생활 관련 정기강좌(2시간 내외) 운영
- 노인대학, 노인종합복지관, 종교단체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교육 ⇒ 노후준비기반 마련**

-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노후설계교육 연계
 -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및 서울시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가입자,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 여성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교육
 - 여성가족부 산하 5개기관 433개소와 연계하여 여대생, 신혼부부, 경력단절 여성, 결혼이민여성, 여성 장애인 등 교육
 -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28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137개소), 여성새일센터(77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171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20개소),

□ 인터넷서비스

- **(노후설계종합포털 '내연금')** 노후소득과 노후생활 관련정보 제공, 노후 준비정도 자가진단 서비스,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등 제공

* 방문자 300만명 돌파('09.12월 ~ '11.3월)

- 국민연금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조회, 모의계산
- 퇴직연금, 개인연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 준비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
- 건강·대인관계·여가·주거 등 노후생활 정보 제공
- 노후설계 상담 및 교육 신청, 온라인 상담

○ (인터넷카페 ‘행복준사’) 생생한 노후설계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

* 회원 21,768명, 방문 600,624명('08.12월 ~ '11.3월)

VI. 추진 성과

□ 서비스 제공 실적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노후설계 상담(건)	607,758	107,410	224,789	275,559
노후설계교육(회/명)	7,512/342,583	—	1,385/56,382	6,127/286,201

○ 수급자 자원봉사단 구성·운영을 통해 은퇴자 사회참여 지원

* 90개 봉사단(지사별 ‘연금나눔이 봉사단’), 1,466명 회원 활동 중

□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정보인프라 구축

- 상담 및 교육실시 결과 입력·관리 및 실적 집계·분석이 가능한 업무처리 전산 시스템 개발, 노후설계 종합포털 구축, 인터넷카페 개설

○ 노후설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CSA) 개발

* CSA 1급 : 4개월(80h) 과정, 재무설계, 생활설계, 지역 사회자원, 상담심리 등 4개 과목

* CSA 2급 : 3개월(72h) 과정, 노후생애설계 기초, 생애사적 관점의 노화 이해, 성공적인 노후준비 설계, 재무설계 기초와 위험관리 이해, 연금소득과 자산운용, 노후재무설계와 활기찬 노후생활 등 6개 과목

□ 상담·교육·사회자원 연계·평가시스템 등 프로세스 구축

- 재무·비재무영역의 **상담메뉴얼** 개발·활용
- 전담강사 양성·배치, 교육콘텐츠 개발, 교육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킹 등 **대국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 노후설계 강사 105명(전담강사 58명, 겸임강사 47명)
- **사회자원 연계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 한국자원봉사센터 등 23개 기관과 MOU 체결
- 서비스 만족도 조사, VOC 수집 등을 통해 **서비스 평가 및 개선**

□ 전문인력 양성

- 재무영역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20명, AFPK(한국재무설계사) 545명
- 노후생활영역 : 사회복지사 690명, CSA 2급 2,326명/1급 301명

VII. 2011년 추진 계획

□ 사업 목표

구 분	목 표	실 적('11.1~4월)
노후설계 상담(건)	360,000	139,612
노후설계교육(회/명)	6,620/291,280	2,511/136,581

□ 전국 140개 행복노후설계센터 설치('11.4월 완료)

- 공단 지사와 상담센터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노후설계서비스 확대
 - * 「국민행복 노후설계서비스 선포식」 개최('11.4.14)로 사회적 관심 및 참여 제고

□ 생애전환기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 최초 가입, 가입 10년차, 노령연금 청구대상자에게 생애전환기 노후설계안내문 발송 및 상담
 - * (2~30대) 조기 노후준비의 필요성, 합리적 소비지출 및 부채 관리
 - * (40대 중반) 노후 준비자금 점검, 퇴직연금·개인연금정보, 생활건강 관리
 - * (5~60대) 즉시연금 및 주택연금, 생활건강 관리, 자원봉사 등 여가 관리

□ 취약계층 가계 재무 건전성 상담 추진

- 경제적 취약계층 맞춤형 상담 프로세스 및 매뉴얼 개발
 - * 희망키움·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 자활사업 참여자, 금융취약계층 등 대상
 - * 복지부, 금융감독원과 협력

□ 베이붐세대 대상 노후준비 합동설명회 개최 추진('11.6월~)

- 재무, 여가, 대인관계 등 영역별 전문기관과 협력

□ 중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계서비스 추진

- 4~50대이상 고객을 주 대상으로 자원봉사신청을 접수하여 자원봉사센터로 연계하는 자원봉사신청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 소득이 없는 납부예외자, 추가 소득이 필요한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신청서를 접수하여 일자리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구직신청연계서비스 제공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협력기관 확대(16개기관 → 23개 기관)

□ 비재무영역의 상담콘텐츠 강화 및 종합 진단지 개발

- 경력관리, 사회참여, 대인관계 등 **영역별 콘텐츠 다양화**

토 론 문

- 강 인 (서울 사이버대 교수)
- 공상길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 오영훈 (라이프커리어전략연구소장)
- 한은주 (화성건강가정지원센터장)



베이비 부머를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에 관한 고찰

토론문

강 인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1. 현재 시점에서 베이비 부머를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이 왜 중요한가?

1) 과연 노후준비서비스가 필요할까?

- 과거 노년기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부터 최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성공적 노화를 달성할 것인가라는 긍정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여 노인의 삶을 조망하고자 하는 관점이 2000년대 이후 더욱 부각되기 시작함
- 특히 최근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용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동시에 노인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과거보다 더욱 건강하고 높은 경제력과 교육률을 갖춘 신노년층이 더욱 많아짐에 따라 보다 노년기의 삶을 주체적, 적극적, 생산적인 관점에서 전개해 나가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됨
-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후준비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실천적 현장과 교육 기관들에서 노후준비와 관련된 연구와 실천적 서비스가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음

2) 베이비 부머를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은 이전 세대와 달라야 하는가?

왜 중요한가?

- 한국 전쟁이 종료된 이후인 1955년에 태어나서 산아 제한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들은 대체로 빈곤한 어린 시절을 지내고 과밀과 과열 경쟁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민주화를 경험하고 산업화 가운데 경제 발전을 이끈 세대임
- 베이비 부머들은 그 이전 세대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더 받았으며 더 주도적인 삶을 살아왔으면서 동시에 이전 부모 세대를 모셔야만 하는 양가적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더 오래 살고 더욱 건강함
- 이에 베이비 부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며 독립적이고 자기 개발 등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함에 따라 이전 세대와는 보다 차별화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방법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현 시점에서 베이비 부머들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 정년이 54세부터 시작되면서 현 시점에서 베이비 부머들이 점차 은퇴를 경험하게 되는 반면, 사회 내에서 베이비 부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재교육 및 관련 기타 제도적 인프라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은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머들은 이후 고령 세대의 중심축의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임
- 결국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노후준비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까운 미래 고령 사회의 노인 문화가 더욱 긍정적인 맥락에서 주도 문화 혹은 부상 문화로 자리잡고 이에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발전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노화 중심 코드가 형성되게 될 것임

2. 현재 우리나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은 어떠한가?

〈 표 1〉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영역들

노후준비 서비스영역	네트워크	공적 네트워크	민간 네트워크	사적 네트워크
재무			-기업	
건강		-국민연금공단	-종교기관	
대인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학교육기관	
여가		-보건복지부	-문화센터 및 클럽	-배우자, 자녀,
마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형제 및 친척
주거		-보건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친구, 이웃, 동료
죽음		-동사무소	-한국재가노인복지센터	
			-평생교육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1) 영역들의 개별적 접근과 통합적 접근

- 현재 우리나라 노후준비서비스는 다양한 영역들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즉,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마음, 주거, 죽음 등 각 영역들에서 개별적인 전문적 교육과 상담 및 실천들을 강화하고 있음. 동시에 최근 각 영역들을 통합적인 맥락에서 함께 다루는 콘텐츠의 제공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개별적 접근과 통합적인 접근 모두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중요하지만, 보다 통합적인 맥락에서의 영역 간에 균형적인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이 차츰 더욱 요구됨

2) 네트워크의 독자성과 연계성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 민간, 또는 사적 네트워크들이 각기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서로 연계되어 함께 제공하기도 함
- 전문적인 기관들의 독자적 역할 강화와 더불어 각 기관들 간의 인적, 물적 자원들의 연계성 확보가 보다 강조되어짐

3) 생애 과정적 접근과 생애 주기별 접근

- 대체로 노후준비서비스는 생애 주기별, 또는 생애 과정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제공됨. 보다 생애 주기별, 그리고 생애 과정적 특성을 반영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중요성이 요구됨. 이에 다양한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노후설계, 노후준비, 생애디자인, 생애전략 등 다양한 용어 정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3. 어떠한 노후준비서비스 개입이 요구되는가?

1)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후준비서비스 인프라 강화

- 개인적 차원에서 생애 주기, 생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인들의 경제, 신체, 심리적 자원들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여러 영역들의 자원들을 통합하여 강화시킬 수 있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요구됨
- 사회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물적, 인적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됨. 즉,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성의 강화, 평생교육시스템의 강화, 표준화된 콘텐츠와 특화된 콘텐츠의 개발 등 사회적 자원의 강화가 요구됨
- 국가적 차원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 구성과 전문위원회 및 전문인력 구성, 표준화된 콘텐츠 제공 및 관리 감독을 통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화된 노후준비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2) 노후설계 지원체계 구축의 원칙

(1) 균형성

- 앞서 강조된 다양성과 포괄성의 맥락과 더불어 균형성을 강조하고자 함. 즉, 개인의 삶이 각기 다양한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차별화된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노후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포괄하여 제공하는 것을 앞서 강조한 바, 더 나아가 이와 함께 모든 영역의 균형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가치관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의 각 영역에 대한 개인의 준비 욕구 정도도 다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생애 과정 속에서 때로는 가장 강조되던 개인의 가치 영역이 한 순간에 상실될 수도 있음. 이때 다른 영역에서의 균형적인 노후 준비가 이루어진 경우, 예기치 못한 영역에서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보다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완충적, 중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즉 영역들간의 균형적인 노후준비를 기초로 다양성과 포괄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2) 전문성

- 전문성 맥락에서 양질의 콘텐츠 제공과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의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제도화의 마련방안 모색을 강조하였음.
- 이때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전문기구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됨. 즉, 보다 중립적 관점에서 조정과 중재가 가능한 전문지식을 가진 현장전문가,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구와 전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표준화된 콘텐츠의 개발과 물적, 인적 인프라에 대한 평가와 조정 및 방향성 설정이 요구됨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서 어떠한 공적 개입이 필요한가?

- 노후준비서비스는 준공공재,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 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공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측면을 본 토론에서도 강조하고자 함

1) 영역들간의 통합적인 맥락에서 공적 개입

- 한편 어떠한 관점으로 공적 개입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통합적인 맥락에서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이미 건강, 재무, 여가 등 각 영역마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국가 정책과 실천적 개입이 생애과정적 맥락에서 기존 제공되고 있는 바, 이에 통합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을 모두 포괄해서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됨
- 즉, 이러한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통합적인 맥락에서 국가의 공적 개입은 기존 관련 영역별 국가의 정책 및 실천과 상당 부분 중복적 개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들을 통합하는 노후준비서비스가 과연 국가적 개입을 통해 또다른 특화된 전문적 영역으로의 발전 방향 모색이 가능할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재무 영역에서 자산관리사(AFPK) 혹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는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재무관련 노후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기존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 영역에서 보건교육사는 보다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건강관련 다양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여러 모든 영역에서의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습득하여 제공한다 하더라도 각 영역에서의 보다 강화된 전문적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영역에서 더 많은 상실들을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를 보다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별적인 전문적 정책과 실천들에서 나아가 어느 한 영역에도 치우치지 않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개입은 반드시 필요함

2) 중립적인 공적 기구 설치 및 전문 위원회 구성

- 그렇다면 누가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기존 기관들 간에 연계가 어렵고, 각기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인 공적 기관에서의 개입이 요구됨
-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잠재적 수요를 창출하며, 보다 국가가 개입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고령사회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3) 기존 다양한 민간 기관들의 연계성

- 다만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각 영역들에서의 전문 인력의 배치와 각 생애과정에 걸친 다양한 세대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다양한 민간기관들의 역할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인증기관 시스템 등의 활용으로 국가 관리 감독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함
- 결국 많은 영역들의 통합을 요하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얼마나 중립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다양하게 연계하고 각 영역의 전문성을 욕구에 부합하여 강화, 제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임

5. 베이비 부머들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은 무엇이 달라야 하나?

(1) 베이비 부머, 클라이언트 욕구 반영

- 주도성, 생산성, 자기개발의 욕구를 반영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즉, 베이비 부머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가 보다 더 많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학에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강화, 기업, 민간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 및 자기개발과의 연계가 중요함
- 이에 베이비 부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예술 문화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콘텐츠와 신규 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베이비 부머, 클라이언트 자원 활용

- 상대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건강, 지식 등 베이비 부머들의 자원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반영이 요구됨
- 자원봉사, 멘토 활용 시스템을 통해 이웃 공동체와 혹은 다른 세대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즉, 상대적으로 이전세대에 비하여 보다 많은 교육적,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마련해야만 할 것임

(3) 기술적, 실천적, 적극적 개입 강화

- 베이비 부머는 노년기를 바로 직전에 앞둔 세대로 노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생산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즉, 노후준비프로그램은 다른 세대보다도 교육적 차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다 기술적, 실천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요구됨. 예를 들어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근로활동에 대한 욕구가 이전 세대보다 높은 만큼 이에 관한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실천적 개입이 필요함

(4) 직장 내 찾아가는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 현재 베이비 부머들은 은퇴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함. 동시에 각 직장내에서 바쁜 일과로 인하여 실제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경험하게 됨. 즉, 실제로 노후준비가 가장 필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하여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세대임. 이에 직장 내의 찾아가는 노후준비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여성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관심 강화

- 실제 이전 세대보다 많은 여성들이 직업세계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업주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베이비 부머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서비스가 요구됨. 배우자의 직장 내 프로그램 활용, 또는 다양한 민간기관들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6) 신노년 문화 창출의 선도적 역할 강화

- 베이비 부머들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고령사회의 미래 노인문화가 주도 문화 또는 부상 문화로서 긍정적 맥락에서 노화가 중심코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 이에 보다 긍정적이고 독립적이며 주도적인 신노년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미래 노인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지관의 노후 준비 관련 서비스 현황

토론문

공상길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장)

1. 사회복지관 관점에서 본 노인문제 정의

(1) 노인의 빈곤에 따른 경제적 문제

노인에게 있어서 경제적 문제는 곧 빈곤을 의미한다. 이는 서구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즉, 미국과 영국에서 2차대전 후 행해진 빈곤에 대한 연구에서 노인들의 대부분이 빈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노인들은 빈곤집단의 핵심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노인의 빈곤은 곧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경제적 부양 책임으로 이어지므로, 가족은 노인의 부양을 기피할 수 있고,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 역시 빈곤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후대책에 대한 국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우선 되어야 하며, 노인의 경제적 부양을 사회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의 건강 약화와 질병에 따른 가족문제

우리 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의 약 87%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OECD 통계에 따르면 비노인 계층에 비해 1인당 의료비용이 2~5배에 달하고, 75세 이상 후기노인계층의 1인당 의료비용은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기획단,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 가운데 86.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경우 92.5%가 만성질환 유병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노인질환 가운데 관절염(43.4%), 요통좌골통(23.5%), 고혈압(23.5%) 등의 만성질환이 많았으며, 이러한 만성질환은 완치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노인의 건강 약화와 질병은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인의 수발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며느리 즉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수발과 보호를 받을 노인의 권리가 상충될 수 있다.**

(3) 노인의 역할상실, 고독 및 소외문제

고독과 소외문제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상 노인을 역할과 심리적인 면에서 고립시키는 속성이 있다. 산업화 이전에는, 노인의 경험과 지식이 후손들에게 전달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노인들도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라 처우 받고 경쟁하는 존재로 변화시켰다. 노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과 지식에 적응하는 역량이 젊은이들에 비해 떨어지면서 소위 생산성의 문제로 산업현장에서 정년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강제 퇴직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인은 사회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위치로 전락하면서 지위가 상실되고 이에 따라 고독과 소외가 함께 밀려드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과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비롯한 가족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노인문제를 중심으로 본 노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 안정

가. 공적연금제도등의 사회보장제도 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예비노인집단(퇴직을 앞둔 중년)을 위한 취업, 창업활동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나. 취약계층 일수록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젊은 세대에서부터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계경제에 대한 재무관리, 금융교육 등의 취약계층(여성, 다문화, 저소득등)의 노후준비 기반 마련의 지원이 필요함

(2) 보건,의료정책을 통한 건강 지원 서비스

가. 198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제도를 강화하여, 노인성 질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나.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보건, 의료기관이 확대 설립되어야 한다.**

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도 감소시켜 노인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다양한 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의 역할 상실 및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종합복지관 설립 및 확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 확대 등이 필요.**

3. 사회복지관의 노후 준비 관련 프로그램 현황

(1) 유사 프로그램 사례

가. 시니어아카데미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과정목표	사업추진내용
사회교육	영어기초, 영어회화, 정보화교실 수업 진행
취미교육	서예, 한문, 민요교실 수업 진행
건강증진 교육	고전무용, 요가, 실버댄스, 스포츠댄스 수업 진행
공연, 취미, 봉사동아리	공연, 취미, 봉사동아리 결성 및 활동 진행
대외 행사참여	공연동아리(고전, 스포츠댄스, 실버댄스 등) 복지관 및 외부행사 참여
취미,봉사동아리	취미, 봉사동아리(민요, 서예, 기타)
시니어 아카데미 작품발표회 진행	- 발표회를 통한 프로그램의 참여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부여 -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유발을 통한 참여도 증진
글쓰기 집필반	- 어르신들이 글쓰기라는 매체를 통한 자기의 내면 세계 표출 - 시니어 아카데미 글쓰기 집필반 모음집 발행

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반포종합사회복지관)

1)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 우울증이 심한 저소득 독거어르신이 자아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어르신의 지난 삶을 회상하고, 긍정적인 노년기로 인식하며, 건강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내용

- 자아통합 집단상담프로그램
- 자서전제작 프로그램

3) 이용대상

- 지역사회 내 우울증이 심한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4) 기간

- 4·5월 : 주1회/8회기(자아통합 집단상담프로그램)

- 6-11월 : 월 2회 이상(자서전제작 프로그램)

다. 노년기 예비 부부의 갈등 관리 및 부부관계 프로그램(잠실종합사회복지관)

- 1) 대상: 부부간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는 50~65세 중년 부부 또는 그 일원
- 2) 내용: 부부관계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 인지 및 건강한 부부관계 모색을 위한 개별, 집단상담, 심리치료 집단활동, 여가 공동체 활동, 부부여행

라. 중년남성대상 프로그램(과천종합사회복지관)

1) 남성문화증진프로그램

- 직장인 남성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및 교육을 받을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남성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 주고자 한다.
- 세부내용 와인교육, 테이블매너, 비즈니스 대화법, 카메라교육, 바 리스타 등
- 시 기 : 연 2회(6월, 10월 중)

2) 싱글남성지원사업

- 기러기 아빠, 미혼남성, 주말부부, 이혼독거남성등 가정에서 홀로지내는 시간이 많은 독거남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자활사업(사회복지관 공통사업 예시)

1) 지하철 택배서비스

- 대상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 목적 : 대중교통(지하철) 및 경·승합차를 이용한 당일 운송 서비스(소화물 및 서류 등)
- 내용 : 택배서비스

2) 이미용 서비스

- 대상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 목적 : 이미용 기본기술을 습득하여 지역 내 장애인, 노인, 부랑인 복지시설 및 병원, 재가 노인세대 컷트 등 파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과 향후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가로서의 취업 및 창업을 유도
- 내용 : 전문 기술교육 및 이미용 서비스

4.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 제1안의 장, 단점

(거점기관 중심안-사회복지관)

(1) 장점

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역 내 접근성 용이

- 사회복지관의 입지는 주거 밀집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이용대상자들의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다.

나. 지역사회 자원의 확보 및 연계성 강점

- 사회복지관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들과 정보들을 대상자들에게 연계하고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기존에 형성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용이 용이하다.

다. 서비스 중점 관리 대상자들의 사후관리 경험 및 노하우 풍부

- 기존 중장년층 및 노인대상 프로그램들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자 및 대상자들의 사후관리와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질 개선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라. 저소득층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대상자 파악 유리

-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서비스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 대상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주요서비스대상자들의 접근도와 인지도가 높아 사업의 초기정착에 유리하다.

마. 기존사회복지 전달체계 활용에 대한 장점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신규수행체계 구축에 비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바. 사회복지관의 기존사업(노인프로그램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의 활용

- 사회교육, 문화교육프로그램 및 사례관리사업 등 사회복지관의 고유업무와 부합되어 노후설계지원사업의 서비스대상과 자격에 있어 한정적이지 않은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

(2) 단점

가. 사회복지관의 부정적 이미지(저소득층 위주 사업기관)작용에 대한 우려

- 사회복지관의 저소득층 이용대상자들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로 인하여 보편적 서비스제공(전국민 대상)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나. 사회복지관 운영 체계에 따른 편차

- 현행 사회복지관 운영체계의 기관별 편차(운영규모 및 형태, 수준 등)로 인하여 전국 단위의 균형적인 서비스제공에 저해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다. 자치단체별 지역적 편차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별 편차로 인하여 복지관의 수, 운영규모에 따른 거점기관 수행에 있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일관적인 서비스제공이 어렵다

라. 사회복지관의 고유 기능 외 부분에서의 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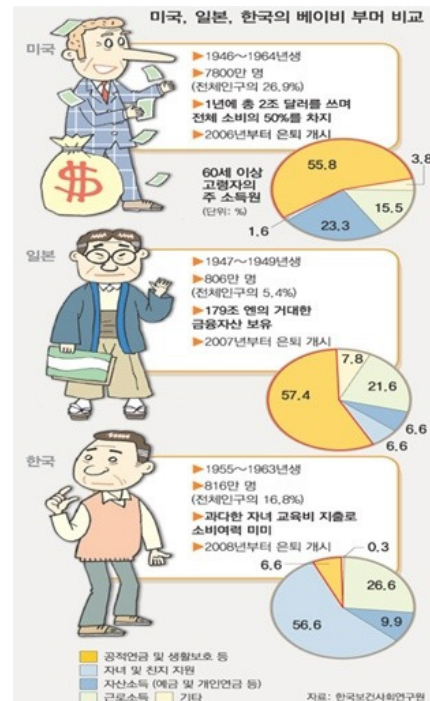
- 사회복지관의 고유업무인 상담, 교육, 자원연계, 사후관리등의 비재무 영역 서비스 외에 노후설계서비스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있는 재무, 주거, 건강영역에 있어 비전문성 및 취약함을 갖고 있다.

5. 결 언

2006년은 미국의 2차 대전후(1946 ~ 1964)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된 해였다. 7700만 베이비 부머는 3300만 부모세대와 4400만 자녀세대를 덩치로 압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부흥을 일으킨 주역이며 평균자산이 86만 달러 로 돈도 제일 많다. 건강을 중시하고 늙기를 거부하며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편다.

일본에선 1947~49년 태어난 680만 '단카이(團塊)세대'의 은퇴가 2007년 시작됐다. 같은 세대 의식이 강해 '덩어리'라는 이름을 얻은 이들 세대 역시 금융자산만 130조 엔에 이르러 사회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6·25 전쟁 직



후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 전 1963년까지 태어난 712만명)는 미국과 일본과는 다르다.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정치·경제의 주역과 실세 자리를 누렸지만 우리는 '끼인 세대'로 불린다. 허리 휘도록 자식 교육시키느라 모아둔 돈도 없을뿐더러 자식을 사회로 내보내 가정 이룰 때까지 뒷바라지해야 할 세월이 많이 남아 노후 앞가림은 꿈도 못 꾸다. 위로 부모 봉양하고 아래론 자식의 부양은 생각도 못하는, 말 그대로 '끼인 세대'인 것이다. 향후 약 8년 사이에 엄청난 수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퇴직하게 된다.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직면함에 따라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부양 부담 문제로 전이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 차원의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게 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고령화와 은퇴이후 노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취약한 노인계층 위주의 기초적인 공적사회보장체계의 확립과 발전이 이루어 졌다면 효과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구축을 발판삼아 정부를 비롯한 개인, 기업, 지역사회의 능동적 역할정립으로 보편주의적인 노인복지 모형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Productive Aging 측면에서의 노후준비 - 커리어를 중심으로 -

토론문

오영훈 (라이프커리어전략연구소장)

발표자에 의하면 조사대상 베이비붐 세대의 과반수인 51%가 노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는데 주로 걱정거리는 건강(39.8%), 생활비(34.3%)가 원인으로 무위(6.3%)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상자의 74.9%가 65세 이전에 은퇴하여 취미나 여가(44.4%)활동을 선호하고 있는 대신 자원봉사(13.5%), 일자리 관련(11.0%)활동에 대한 관심은 그에 훨씬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사결과를 인용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65세 이후에 일을 하지 않을 것(36.1%)이라고 답한 경우 여가시간 활용(69.3%)을 위해서라고 했으며, 일을 그만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없으면서도(83.4%) 정작 선호하는 노후교육은 주로 건강관리(61.1%)로 취업 및 직업교육(3.7%)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하였다.¹⁾ 이처럼 아직도 대다수의 베이비붐세대는 노후를 활동적인 일에서 물러나 취미나 여가생활로 전환하는 직업생활의 종말로 여기는 과거의 은퇴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미국노년학회의 학술회의 의제 중의 하나인 “Can our country afford to have tens of millions of us living to 80? or 100?”²⁾라는 경고성 의제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우리나라도 이미 최빈사망연령이 83세를 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는 90세를 넘어 살게 되는 시대³⁾가 다가오므로 이에 걸맞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1)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10 미국노년학회(Aging in America), 시카고, 2010. 3

시급하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가 소득(전후세대 65.5% 베이비붐 세대 58.5%)위주에서 건강과 자기발전 등 (전후세대 34.5%, 베이비붐세대 41.5%) 비재무적 이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자원봉사 참여의사 (전후세대 35.4%, 베이비붐 세대 44.0%),사회참여의사(전후세대 42.4%, 베이비붐 세대 49.5%) 등에 있어서도 전후세대보다 높게 응답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이다⁴⁾ 베이비붐 세대의 코호트 특성인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도시화로 따른 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높아진 기대수준에 걸맞는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의 은퇴를 계기로 경제적 생산성에서 사회적 생산성으로,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연령진입장벽이 없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정경희,2011)는 ⁵⁾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토론자는 발표자의 내용에 부가하여 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계기로 생산적 노후(Productive Aging)측면에서 본 노후준비에 대해 주로 커리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노인복지법 제2조) 고 정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령자의 활동이나 사회참가가 제한되는 등 연령장벽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스피드, 효율성, 균일성 등 생산성 제일주의의 가치관이 중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점에 취약한 고령자에 대해 사회적 부담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오해와 잘못된 고정관념이 침투하고 있다” 는 로버트 버틀러 (Robert.N. Butler⁶⁾)의 지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생애발달심리학 연구의 진전으로 “고령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일률적으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능함을 더한층 발휘하는 존재이며 특히

3) 송양민,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실태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제4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2011.4.29

4) 정경희 외, 前掲書

5) 정경희. 제1차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 “베이비붐세대의 현재와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2011.1.27

6) Why we survive? Being Old in America",1969

인생에 있어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것에 대한 판단능력과 같은 지혜, 경험을 살린 고도의 기능 등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발달한다”⁷⁾는 사실이 속속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령자를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과 편견이 대상이 아닌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Productive Aging의 이념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령자의 생산성과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Productivity)이란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비영리단체 활동, 심지어는 가사 업무나 자신에 대한 케어 등을 모두 생산성의 범주에 두는 한마디로 적극적인 참여 (Productive Engagement)를 의미⁹⁾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 사회적 생산성의 의미와 유사하다. 이러한 생산성의 개념은 커리어의 정의에 있어서도 “사람은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복수의 역할, 즉 직업인으로의 역할만이 아닌 학생, 지역사회, 부모, 가사인, 배우자, 자녀, 여가인, 자원봉사 등을 통합해서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실현해가는 것”(D.E. Super, 1980) 이라는 광의의 커리어(life career)의 개념과도 상통한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 스스로도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2조 3항)고 규정한 것처럼 자신의 존엄의 유지, 생활과 장수에 있어서의 QOL(quality of Life)의 개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함은 물론이다. 직업심리학자 한센교수도 “자신만의 만족이나 생계를 위한 직업선택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의미있는 인생을 위해 즉 자신에게도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몇 번이고 직업을 선택해가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¹⁰⁾고 인생계획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바람직한 노후준비는 과거 은퇴신화(Retirementmyth)인 “은퇴는 재무적 사건이요, 일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7) 高橋恵子(1990) `生涯発達の心理学` 岩波新書

8) Robert.N. Butler, 제1회 UN고령화에 대한 세계회의, 1982

9) Robert.N. Butler, ILC-Japan, 長壽社會 global Information Journal, Vol 11, 2009

10) Hansen, L. S., Integrative Life Planning, 1997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는 인적자원의 활용이나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위상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¹¹⁾ 고 지적한 것처럼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지식과 경험의 활용은 개인과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 그런 면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경험이야말로 보물"¹²⁾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유능한 고령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기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운영이나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인턴십,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웃 일본에서도 2007년 문제라고 하여 대량퇴직하는 단카이세대(団塊世代 1947 ~ 1949년 출생, 700만명)가 대거 퇴직할 경우의 인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신현역(新現役)¹³⁾ 제도는 일하려고 하는 단카이 세대들과 인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맺칭시키는 제도이다.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운 이들을 모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회적으로 의의 있는 활동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비즈니스 구축하도록 지자체와의 맺칭을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런데 이들 제도시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조직의 일원에서 개인으로, 수직적사회에서 수평적사회로의 전환의 어려움, 과거의 직함이나 급여수준을 의식하는 등 개인의 니즈와 현실의 갭 등 의식으로 인한 문제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의식문제는 우리나라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은퇴는 종전의 역할에서 새로운 역할로의 사회화하는 인생의 전환기다. 오랫동안 자신의 직업적 정체감을 유지해 왔던 수직적 조직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transition)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전환기를 맞게 되면 다음의 세단계, 즉 1단계 종결국면 (Ending), 2단계 공백기간 (Neutral Zone), 3단계 새로운 출발 (New Beginning)으로 진행된다.¹⁴⁾ 이처럼 전환기는 종결로부터 시작되는데 종결국면에서

11) 이소정(2011), "100세 시대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12) 동경대학 21세기 COE MMRC, "기업등 OB인재맺칭사업의 현상", 2007

13) 정년이 되어 제일선에서 은퇴하면서 오랫동안 회사근무를 통해 얻은 경험, 지식,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지칭함

는 무언가를 얻기 전에 옛 것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상실감(loss) 등의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 시기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방향감각 상실이나 불안감이 엄습하고 자기 정체감에 혼돈이 오는 등 무언가가 잘 안되어 가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는 상황대처 기술이나 주의집중 지속, 그리고 합리적인 장단기 의사결정을 위한 일상적 판단능력이 많이 약화되기 쉽다. 누구나 새로운 출발을 원하지만 문제는 1,2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3단계인 새로운 출발국면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종결국면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 아무리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여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상황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혼자서 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선택과 커리어의 주체인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각도에서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어렵다. ¹⁵⁾ 은퇴를 재무적 사건이나 단순한 인생사건으로만 여겨 정보제공이나 컨설팅으로 접근할 경우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은 이처럼 은퇴는 심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서포트를 통해 심리적 안정이나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통해 커리어 상에 있어서의 전환기의 문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발표자가 베이비붐 세대의 중년시대의 발견과 의미추구에서 이미 강조하신 바처럼 중년기 심리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망설임과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관계에서의 새로운 국면(자녀의 독립과 부부관계의 재구축)을 동시에 맞게 되는 등 3가지 사이클¹⁶⁾을 동시에 겪는 시기다. 이처럼 어려운 국면을 맞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축하고 발달 가능성에 도전하는 커리어 측면에서 중요한 질적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 아래 표1)은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퇴설계 흐름으로 그동안 설계, 컨설팅 중심의 서비스에서 심리적 서포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내담자의 전환기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

14) William Bridges, 1980

15) 渡辺三枝子 `일본사회에서의 커리어 카운슬러의 역할을 생각한다. Fininsurance 통권 39호 Vol.10

16) Edgar Shein박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을 생물사회적 라이프사이클, 일과 커리어 사이클, 신가족사이클의 3가지 사이클로 나누어 각 단계를 표시했다 (Career Dynamics, 1978)

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표1) 美 은퇴설계 패러다임의 변화¹⁷⁾

종래의 은퇴설계	새로운 조류
life stage	life transition (Career Transition)
재무적 사건	심리적 사건-불안, 두려움, 불확실성
컨설팅 중시 -정보제공	상담중시 - 심리적 안정, 자신감 회복, 성장과 발달
소비기반 모델 중시	성취기반 모델 중시
ROI (Return of Income)	ROL (Return of Life), ROC(Return of Career)

아울러 커리어는 개인의 내면의 세계이자 개인의 삶의 방식의 표현이므로 어디까지나 개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내면의 세계와 사회와의 융합을 통해서만이 자신에게 필요한 역할을 능동적으로 추구해갈 수 있다. 스웨덴의 고령자 정책¹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의 고령자에 대한 역할(고령자 니즈)과 함께 고령자의 사회에 대한 역할(인재로서의 고령자)을 강조하면서 고령자를 단일 그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다양한 life course, 일과 삶의 방식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나 자금 지원만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인생을 보낼 것인가, 무엇을 중시하며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고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욕과 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적인 서포트가 중요하다¹⁹⁾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커리어의 본질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단지 일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여 일자리와 베이비부머의 매칭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개개인이 구가하고자 하는 인생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축적해 온 지식이나 잠재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능력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도록 하여 본인이 내면적 심리적으로 만족하는 일을

17) New Retirementality, The Financial Life Planning Institute의 HP를 중심으로 필자 재작성

18) 2003년에 공표한 스웨덴 정부의 "앞으로의 고령자 정책 " 심의회 답신(가칭 Senior 2005)

19) 川崎一彦 홋카이도 동해대학교수, 중앙공론 200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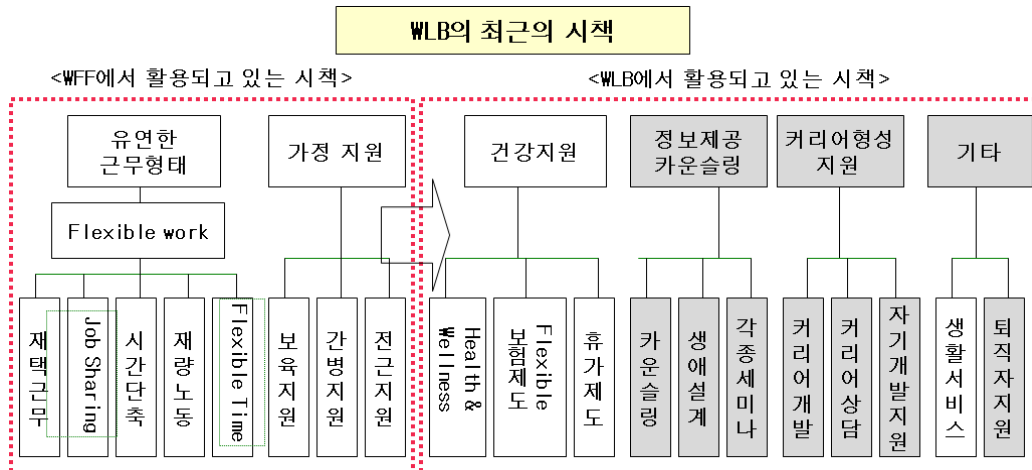
하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단지 일한다는 의미일 뿐 Productive Aging과는 거리가 있다.

이처럼 Productive Aging을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을 필요로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상당수는 지금까지의 스킬이나 능력을 초월하는 경우이므로 꾸준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넘어서도록 하여 의사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여야 한다.²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기개발, 평생학습을 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주체적으로 개발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수 밖에 없다. 1생애 1직업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커리어개발이란 자신의 정체성 확장을 위한 평생학습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어릴 때는 학습만 하고 성년이 되어서는 일만 한 후 노후에는 여가생활만 하는 학습, 일, 여가가 각각 시계열처럼 분리되는 식의 삶의 방식으로는 다가오는 100세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없다. 즉 전 생애에 걸쳐 학습, 일, 여가, 가족 등을 아우르는 일과 생활의 균형의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 하에서 자신의 고용유지를 위한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수명의 연장으로 직업인생의 장기화하는 데에 따른 직업능력의 개발, 가계리스크 대응을 위해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가정생활에 요구되는 시간, 건강유지, 자원봉사 등 자신의 가치관에 의한 다양한 인생의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는 이제 일만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기업은 기업대로 일과 생활의 양립을 통해 종업원의 창조적 발상, 스킬, 유연한 사고방식이 기업의 이윤에 직결된다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초기단계로 주로 일과 부모역할의 양립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유자녀 남녀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당초에는 우리나라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두었지만 1990년대 들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생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노동시간의 배분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애설계, 경력개발, 퇴직자 지원 등 커리어지원형 교육을 확대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20) 渡辺三枝子, 커리어 심리학, 2007

있다. (그림1참조) 최근의 일본도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1) WLB(Work & life balance) 시책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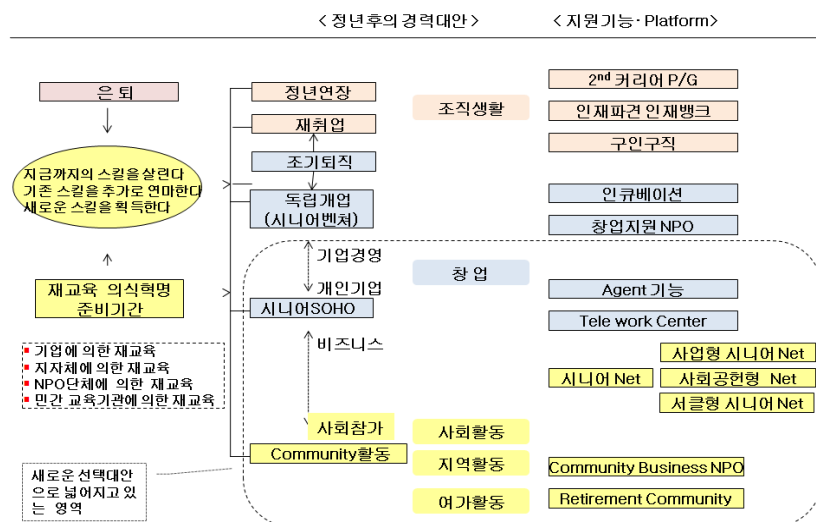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처럼 오랜 직업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회사에 의존한 채 살아온 경우 돌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정하도록 요구한다면 곤혹스러울 것이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며 지금처럼 전례와 모델이 없고 예측이 안되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mind's eye)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무엇을 전달하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 전환기 프로세스를 잘 거처도록 심리적 서포트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Productive Aging의 구현을 통해 나이들 어서도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춘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Future pull)이 나오게 될 것이다²²⁾. 또 은퇴를 지금처럼 일정 연령까지 마치 결승선처럼 얼마만큼의 돈을 모으지 않으면 안되는

21) 花田研究會(2003) “WLB에 있어서의 2가지 시점”, 慶應義塾大學

22) Gelatts(1989), Positive Uncertainty(긍정적 불확실성)

재무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압박감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스웨덴의 고령자 정책 답신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처럼 “ 80세의 학생, 75세의 장관, 25세의 시의회 의장, 60세의 동료와 일을 하는 30세²³⁾가 당연시되는 연령통합적 사회를 지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강한 자율적 커리어 의식과 자립 마인드 그리고 이를 서포트하는 시스템의 정비, 평생학습의 기회제공, 재직 중은 물론 은퇴 후에도 삶의 영역 전반에 대한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사회적 서포트가 중요하며 다양한 가치관에 맞는 다양한 선택대안을 갖추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림2 참조)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사회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는 문제이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기 선택 자기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인생을 함께 하는 것은 다름아닌 바로 자기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림2) 은퇴후 다양한 경력대안과 플랫폼 사례 ²⁴⁾



23) 川崎一彦(2006), 前掲書

24) 재)광역 관동권산업활성화센터(2005), “단카이세대 정년과 시니어넷 시니어 NPO의 역할” 인용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내용 및 연계를 중심으로 -

토론문

한은주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 그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가족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가족생활교육을 꼽을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은 가족구성원의 잠재적 강점기능을 발현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가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아울러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생활교육 주요사업

프로그램명	대상	목적	주요 내용
예비부부/ 신혼기 부부교육	예비부부 신혼기부부	성공적인 결혼 으로서의 유도 결혼초기 적응 지원을 유도	○ 출산의 중요성 ○ 부모의 연령과 출산 ○ 서로의 차이점 인정하기 ○ 신혼기부부 갈등의 요인과 해결방법 ○ 의사소통법 ○ 가족계획 ○ 원가족으로부터 독립된 가족만들기 ○ 예비부모교육 등

프로그램명	대상	목적	주요 내용
남성대상교육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대학생 포함 일반 성인남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해결책으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대	○ 남성의 가족생활참여의 중요성 ○ 결혼 및 출산의 중요성 ○ 원가족에서의 성역할 분담에 대한 분석 ○ 나의 성역할 의식 측정 ○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 ○ 가족여가의 중요성 ○ 성인자녀와의 갈등 해결방법 ○ 부부간 은퇴 후 가족생활설계 등
가족성장 아카데미	가족구성원 누구나	생애주기별을 고려하여 건강가정을 이루기 위한 전체 틀과 방향을 제시 하고, 가정문제를 예방	○ 건강가정과 가정의 사명 ○ 가정진단과 주부 역할 ○ 부부관계 증진 ○ 부모자녀관계 증진 ○ 부모코칭 ○ 의식주 관리 ○ 합리적인 자원관리 ○ 일-가정의 조화/ 가족역할 공유 ○ 건강한 시민의식 ○ 가족자원봉사
청소년기 부모교육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부모-자녀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	○ 부모-자녀간 효과적인 대화방법 ○ 자녀의 소비생활 지도방법 ○ 자녀의 컴퓨터 중독 예방방법 ○ 자녀의 학습진로 및 지도방법 ○ 자녀의 생활설계 지도방법
중년기교육	50대 퇴직 전후의 중년	중년기 및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준비	○ 노년기 경제적 문제와 극복방안 모색 ○ 노년기의 여가 및 소비생활 만족도 증진 ○ 중년기 남녀의 갱년기 변화 ○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변화 이해 및 관계 재설정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 훈련
노년기교육	은퇴 후 노년	성숙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교육을 통해 원만한 노년기 적응을 도움	○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 ○ 성공적 노년의 의미 이해 ○ 손자녀와의 관계 및 친밀감 형성 ○ 여가 생활의 계획과 공유 및 실천 ○ 건강을 위한 운동방법의 원리와 실천 ○ 노인소비자 정보의 습득과 실천 ○ 과거를 통한 자신의 삶 수용과 화해 ○ 존엄한 죽음의 이해와 준비

□ 현재 전국 136개소(중앙센터/서울시센터 제외)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0년 실시된 가족교육사업이 1,526건, 9,396회기, 323,68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평균 한 센터당 가족생활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2,38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노년기교육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0년 3번째로 회기수가 높은 사업으로 총 1,187회기에 36,679명의 참여자가 교육을 받았다. 또한 중년기교육은 11번째로 총 188회기, 약 4,840명의 참여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노후생애설계서비스 사업’으로 2008년 3월부터 함께 사업을 협력하고 있다. 교류내용으로는 공단은 재무, 건강 등 노후설계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센터는 부부, 중년기(노년기)가족생활 및 대인관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방법은 공단지사 및 지역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교육시간 상호 할애 편성을 하고, 교육 횟수 및 시간은 공단지사와 센터 간 사전 업무협의 하에 결정된다.

○ 이와 같이 노후생애설계와 관련된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사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유관기관들과의 교류 및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본 센터의 중년 및 노년기 교육과 관련지어 몇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중년기 및 노년기교육이 대략 일년에 한 번 정도 행해지면, 회기수에 있어서도 4회기 내외이다. 보다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설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횟수의 교육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 역시 매우 다양하다. 본인 스스로가 은퇴 및 노화 그리고 노인이 되어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아성장 뿐만 아니라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 둘째, 노후 준비 및 노후 설계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시거주 노인과 농어촌 거주 노인의 경우 향후 준비 및 설계에 따른 욕구가 매우 다를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노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셋째, 한 기관에서 주된 대상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노후준비라는 것이 반드시 중년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전 생애주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수립된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교육사업은 매우 제한적인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상 역시 한정될 수 밖에 없는 단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끊임없는 네트워킹 및 사업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더 다양한 대상 모집과 인원 증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로간의 사업이 중첩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높이기 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방법이 아닐까 싶다.
- 넷째, 현재 노년준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매우 높으나, 실제적인 준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각 개인이 처한 조건 및 사회적 조건 등 여러 가지가 그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향후 국가적으로 통합적인 노후설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긴다. 이를 위해 또 다른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그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관 중심의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행하는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 역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긴다.

□ 마지막으로 노후준비와 관련지어 각 현장에서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하고, 이를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만들어 진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

1955년부터 1963년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는 현재 약 712만명으로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해온 우리 사회의 압축적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적 대처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인구고령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22일에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을 발족하였고, 2011년 1월부터 매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포럼마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 여가, 노동, 은퇴, 가족, 소득,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정부, 학계, 관련 업계 및 언론계 전문가를 모시고,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현황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베이비붐 세대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포럼 위원 명단 |

성명	소속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손명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송양민	가천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장
오영훈	라이프커리어전략연구소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원권	우송대학교 부총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홍백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